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하셔서 주의 말하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5월 22일 (토) 제 1826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거리 둔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 더 가까이!

#### ‘2021 성령강림절, 팬데믹으로 멀어지고 벌어진 관계 좁혀나가는 성령님 사역 기대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묶는 사랑의 끈이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사랑의 끈이다. 하지만 성령은 이해하기 어려워 왜곡되거나 체험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으로 서로가 거리를 두다가, 이제는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올바른 성령 이해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성령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므로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출32:1-6). 이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새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시위해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고는 처음 것과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다(출34:1-9).

이후에 이스라엘의 완약함을 지속적으로 목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다.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고 하신다(렘31:33). 마음판에 새겨졌으니 이제는 잊어버릴 일이 없다.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절정인 성령강림절을 크게 축하했다. 부활 전야제처럼 성령강림 전야에 모여 예배했다. 이 전야 예배 때는 구약성경의 본문을 내 군데 읽었다. 이 내 군데 본문은 오순절 성령강림을 예상하는 본문들이었다.

첫째 본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죄로 인해 수없이 분열돼있는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사건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본문은 시내산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출애굽기 19장이다.

(2면으로 계속)



자를 사랑으로 묶으시고, 나아가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묶어 주시는 일치와 사랑의 끈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심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째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부활로부터 50일 후가 성령강림절인 것이다. 구약절기에 의하면 유월절에 있는 초실절 후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이 오순절은 하곡인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다. 봄에 보리가삭이 맺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여름추수인 밀 추수에 이른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밀 추수인데 말이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행2:1-4).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구약의 오순절이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것을 보

여준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했고, 50일째에 시내산에 도착해 언약의 돌판을 시내산에 도착해 언약의 돌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초의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양식이다가 하늘 양식을 받았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열매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헌법(?)을 반포하면서 한 민족, 한 나라로서 출발한 것을 알리는 절기였다. 최초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문서를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바로 송아지로



KPCA 제45회 정기총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 제45회 KPCA총회, 신임총회장 이재광 목사 부총회장 박상근 목사, 윤희주 장로, 사무총장 김광철 목사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이기성 목사) 제45회 총회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수3:5)’ 주제로 5월 11일 애틀란타 비전교회에서 본부로 zoom을 이용한 화상으로 열렸다. 지난해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 부총회장 이재광 목사(동남노회, 할렐루야장로교회)가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됐으며 목사부총회장 후보 박상근 목사(서북남노회,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와 장로부총회장 후보 윤희주 장로(뉴욕노회, 뉴욕에일장로교회) 등은 과반수 투표로 각각 부총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총회역사상 부총회장을 2차례 하게 됐다. 부족하기에 많은 훈련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연단이 결코 헛되지 않게 연단을 기초삼아

최선 다해 섬기겠다”며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고 복음에 충실하며, 오직 정의를 몰 같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위협에 굴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팬데믹으로 모두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노회, 목사, 교회, 성도들이 회복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이민교회 상황이 녹녹치 않다. 지역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교회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와 협조를 부탁했다.

총회도중 이재광 목사는 총회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소통의 광장으로 삼아 총회원들의 의견을 임원회가 잘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부른초장 이대우 목사



개혁의 명방울-조진모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반서적/백트셀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자이외산(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제25차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es in America  
**주제: 복음을 가득 담은 새 비전과 새 땅을 향한 총회**  
2021년 제25차 성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총대 회원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총회장 장광춘 목사 ---  
일시: 2021년 5월 24-25일  
장소: Church Of the Nazarene(900 W. Line St. Bishop, CA 93514)  
호텔: Cielo Hotel Bishop-Mammoth(651 N. Main St. Bishop, CA 93514)  
**제25차 미주복음주의장로교회총회 정기총회(총회장/부총회장 이취임식)**  
목회자세미나: 기독교 윤리학 - 강사: 박성민 박사(아주사대학 전 부총장)  
목회와 기도 - 강사: 엄영민 목사(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은퇴목사/ KAPC증경 총회장)  
초청외빈: 오세훈 목사(KAPC 차기 총회장)  
민승기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총회장: 장광춘 목사 부총회장: 윤갑식 장로 | 문의: 총무 전모세 목사(714-501-6613) | 서기: 성기은 목사(213-700-4593) 회계: 전지승 목사**



발행인 칼럼

폭력과 위선의 사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시치미를 떼는 폭력과 위선의 사람 가인에게 하나같이 물으셨다. 그 이후로 인류 역사에는 폭력과 위선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온 세상에 만연한 폭력과 위선의 모습을 보고 있다. 며칠 전 한국의 1심 재판부에서는 입양한 딸을 폭력으로 죽게 한 양모(養母)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지난 4월 달에는 일년 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한 유죄판결을 배심원이 내렸다.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BLM 운동이 일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시아에 대한 무차별 폭력은 또 어떠한가. 미얀마, 이스라엘 등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참담하다. 지도자와 공직자들의 위선은 그들의 인사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빌 게이츠의 성적 폭력과 그동안 그의 이미지를 포장했던 위선은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교회도 예외이지 않다. 교회 안에 물리적 폭력은 드물지만 성적폭력의 소식은 잇달아 들려오고 언어적 폭력과 고도의 위선은 드물지 않게 보고 듣는다.

폭력과 위선의 일상화로 더 이상 이 일로 스스로 아파하거나 서로 상처받지 않는 시대가 된 듯하다. 그러나 서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민망하게 물을 일이 없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어떤 이는 목청을 높인다. 이렇게 하자, 저러면 된다고 폭력과 위선을 잠재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폭력과 위선을 바라보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 그것을 해결하려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노벨상을 받았던 프랑스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도가 끝내 오지 않듯이 폭력과 위선을 완전히 잠재울 분을 없고 따라서 그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힘써 데모하고 힘 모아 혁명을 해야 하나? 아니다. 폭력과 위선을 성향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폭력과 위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 그러므로 데모와 혁명 대신 기다려야 한다. 왕의 귀환(歸還)을 기다려야 한다. 그 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폭력과 위선을 심판하실 그 분이 오신다. 우리는 그 날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 날까지는 이렇게 산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찾아온 폭력 앞에 칼이라는 폭력으로 맞서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또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一喝)하셨다. 폭력과 위선의 가이사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폭력과 위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 목을 걸고 사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늘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이 땅의 폭력과 위선을 해결 하라는 부르심보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분을 믿는 그 신앙의 고귀함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십자가다. 폭력과 위선을 전략으로 일삼는 십자가의 원수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그 날까지는 십자가로 산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문이시다. 얼버무리지 말자. 폭력을 물리치고 위선을 부끄럽게 만드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았습니다” 라고 답변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물지 않은 상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BBC, 라마단 중 이슬람사원 내 시위 강경진압 기폭제로 무력충돌 장기화 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양측은 결사항전을 공언하며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Israel-Gaza violence: The conflict explained).

이-팔 사태는 왜 일어난 걸까. 오랜 종교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경찰과 팔레스타인인 간 충돌이 있었다. 충돌은 이스라엘 당국이 라마단 기간 다마스쿠스 게이트 광장을 닫으면서부터다. 라마단 기간 매일 저녁 금식을 끝낸 이슬람교도들이 나와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광장을 폐쇄하자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차량 등에 불을 지르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아랍계 청년들이 유대인을

사이 쪼갰다. 7일 동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에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이 모여 종교의식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반 이스라엘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 경찰이 알아크사 사원에 진입해 이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무력충돌은 지난 10일부터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폭력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변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려사태를 촉발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싸움은 동예루살렘의 한 언덕 꼭대기에 있는 성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경찰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촉발됐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이곳을 각각 하람 알-샤리프(고귀한 성지), 팀플 마운트라고 부르며 경배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유대인 정착민들 때문에 되겨우기에 처한 주요 아랍 구역에서 이스라엘 경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에 종교 및 국가적으로 깊은 중요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운



종교적 국가적 성지 동예루살렘이 분쟁 핵심 국제사회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 보이지 않아

폭행하거나 반대로 유대교도들이 아랍계를 공격하는 영상이 확산된 게 갈등 기폭제가 됐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수면 아래 늘 존재해 왔다고 영국 BBC 방송은 진단했다. 갈등은 무슬림이 일년 중 가장 거룩한 날로 여기는 ‘권능의 밤’ 기간인 지난 7-9일

불이 붙었다.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 내부까지 이스라엘 경력이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하자 크게 분노했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이슬람 사원에서 있었던 충돌이 많은 무슬림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대규모

로 이어졌다. 이 수 세대에 걸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삶을 파탄내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근 사태는 양국 분쟁의 가장 첨예한 부분인 예루살렘의 긴장감 때문에 발생했다. 구시가지에 있는 성지는 종교적 상징일 뿐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기는 종종 폭

풍은 수십 년간 이어진 양국 분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은 1980년에 사실상 동예루살렘을 합병하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간주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이 꿈꾸는 독립국의 수도라고 주장한다.

거리 둔 세상에서 ... (1면에서 계속)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 것을 축하한다. 셋째 본문은 뱀조각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죽었던 자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본문은

요엘 2장 말씀이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던 바로 그 구절이다. 이제는 말세가 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선포한다. 부활절에 강단을 장식할 경우에는 백합과 같은 흰 꽃으로 장식한다. 부활절은 흰색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성령강림절에 이르면 그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것을 연상하도록 불붙는 것 같은 색깔의 꽃으로 장식한다. 결론으로, 완전한 사랑의 끈으로 결합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듯,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응답한 우리의 신앙이 이루는 사랑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다. 또한 당신의

몸을 모시고 ‘파견’된 그 자리에서도 이웃 사랑의 관계는 단절될 수 없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지금,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를 이룬 성령강림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며, 그 사랑으로 주님과 그의 거리도, 이웃과의 마음의 거리도 좁혀나가는 기회가 되어야겠다.

필렌 교회 및 부지 판매
주정부 정식인가 면세
1.25Acre 부지
General Commercial
80석 성전
프로윈 부동산 Jay Song (213)389-012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초저장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2021년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1 장학생선발공고

목적 | PURPOSE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1.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2.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3.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4.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1.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2.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3.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0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0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4. 추천서 2통
(1)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2)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5. 본인 재학 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 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1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치 않음)
July 25th, 2021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1. 주오남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Yo-nam Joo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
2. 김득열 목사 & 김복신 권사 기림 장학생 1명 The Rev. Tukyul Kim & The Kwonsa Bok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2,000
3. 이민근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Minkeun Lee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4. 왕수복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Soobok Wa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5. 홍길두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Gildoo Hong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6. 신봉성 권사 기림 장학생 1명 The Kwonsa Bongsung Shi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7. 클리블랜드중앙교회 장학생 1명 Cleveland Joongang K. P. C.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8. 손철수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Chulsoo Son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9. 김광영장로기림 장학생 1명 The Elder Kwang Yea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0. New Life 랜싱 한인장로교회 New Life Lansing K. P. C.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1. 이범열 집사 기림 장학생 1명 The Deacon Bumyul Yi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2. 여명자 목사 장학생 1명 The Rev. Myungja Yoo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13. 김득열 목사 특별 장학금 The Rev. Tukyul Kim memorial scholarship for 1 student \$1,000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Tel. 734-981-5549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1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1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1면에서 계속)
이날 오후 7시 드려진 개회 예배는 부총회장 이재광 목사 인도로 기도 부총회장 한광호 장로, 성경봉독 서기 박상근 목사, 설교 총회장 이기성 목사, 특송 비전교회 조몽희 집사와 양상훈 집사, 축도 직전총회장 원종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기성 총회장은 ‘하늘의 속성으로 사는 사람(창1:1-5)’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늘의 속성대로 살지 못하면 혼돈된 어둠이지만 하늘의 속성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하늘의 속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서기의 총대출석 확인시 313명 총대 중 2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45회 총회 화상회의는 이기성 총회장의 사회로 총대 출석확인, 개회선언, 교단가 제창, 회의절차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및 부총회장 선출, 신임 사무총장 선출, 신구 임원 교체식, 공천현의위원회 보고, 각위원회 모임, 44회 보고(총회장, 총회임원회, 사무총장, 감사보고, 회계보고) 유인물, 각위원회 보고, 공로패 증정(직전 총회장 및 부총회장, 사무총장), 폐회예배 순서로 진행됐다.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 서명성 목사가 제45회 총회장 후보 및 부총회장 후보들을 소개했다. 모든 후보들은 단독이다.

총회장 후보 이재광 목사는 박수로 추대됐으며, 목사부총회장 후보 박상근 목사와 장로 부총회장 후보 윤희주 장로 등은 투표로 과반수가 돼 선출됐다.

이어 진행된 사무총장 투표에서 후보 3인(김광철 목사, 최동수 목사, 홍성학 목사)의 정견발표 후 투표가 시작돼 1차 투표에서 김광철 후보가 51%를 얻어 당선됐다. 사무총장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재임 후보 할 수 있다.

투표결과 발표 후 이임하는 총회장이 취임하는 총회장에 게 스톨과 의사봉을 전달하는 순서에서는 이기성 직전총회장이 캐나다에 있어 화상으로 참여한 관계로, 부총회장 한광호 장로가 신임 총회장에게 스톨과 의사봉을 전달했다.

신임 총회장 이재광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먼저 공천현의위원회가 총회에 상정된 현의안들을 보고하고, 현의안이 배정된 각 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헌법규제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아 5개의 결과물을 내놓았으며, 위원회의 의견대로 모두 총회를 통과했다.

△첫째, 동북노회와 필라노회와 현의한 노회구성 조건 변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헌법규제위원회 결정을 총회에서 찬성 75%와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현재 헌법은 노회구성 조건을 ‘5명 목사’와 ‘5처 당회’로 돼있는데, 두 노회는 이민교회의 현실을 반영해 ‘5명 목사’와 ‘3처 당회’로 하향조정해 주고, 이미 활동 중인 노회의 경

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와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증원은 입교인 25명 비례로 1인씩 증선 할 수 있다. 당회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1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로 돼있다. 서북노회 제안의 ‘담임목사와 장로 1인 이상’으로 내리고, 당회폐지도 ‘당회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고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로 수정내용을 담고 있다. 서북노회 제안의 취지는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점점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소도시의 한인교회는 당회 충족조건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신임 총회장과 부총회장들도 취임사와 정견발표를 통해 미주한인교회들의 심각한 현실에 공감했으나, 총회원은 당회구

고 했으며, 총회석상에서 찬성 88%와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또 7인 헌법개정위원회 구성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했다. △다섯째, 영어노회가 청원한 이종 멤버십 청원을 받기로 헌법규제위원회가 제안했으며, 총회석상에서 찬성 88%와 반대 12%로 통과시켰다. 영어노회는 ‘형편이 허락되는 지역교회가 한영 두 노회 이중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앞으로 영어노회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청원했다.

△전도선교위원회는 중남미 노회의 총회선교사 파송 청원을 통과시켰다.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병일, 이덕규, 이승혁, 최종민 이상 4명을 총회파송 선교사로 임명을 허락했다. 하지만 서중노회의 황성욱(파키스탄)과 김창하(멕시코) 선교사 시무연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다음에 다루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관위는 앞으로 총회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기로 했으며, 사무총장에 대한 투표 조례안이 없어 연구해 다음 총회에 현의하기로 했다.

인사위는 별도로 사무총장 복무규정을 위한 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고시위는 목사 고시 정원 총 65명을 허락했다. 뉴욕노회: 김성수(넘치교회), 유명근(뉴욕에일장로교회), 김성준(캠브리지연합교회), 최광현(캠브리지연합교회). 뉴저지노회: 이관재(하나님의 사랑교회), 박준섭(뉴저지해바스타교회) 동북노회: 김종훈(푸른하늘교회), 필라노회: 최석원(필라나디움교회). 다음은 제45회 KPCA 총회 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이재광 목사(동남노회, 할렐루야장로교회) △부총회장: 박상근 목사(서북남노회, 새크라멘토한인장로교회), 윤희주 장로(뉴욕노회, 뉴욕에일장로교회) △서기 김도완 목사(뉴저지장로교회, 뉴저지노회) △부서기 박태겸 목사(캐나다동신교회, 캐나다동노회) △회록서기 강세훈 목사(버지니아장로교회, 수도노회) △부회록서기 정지훈 목사(칼라라총은씨앗교회, 남태평양노회) △회계 이화영 장로(밴쿠버삼성교회, 캐나다서노회) △부회계 박영훈 장로(나성영락교회, 서노회) △영어회록서기 잔 김 목사(브리티시웨치치, 영어노회).

(박준호 기자)



우에는 구성요건 유예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기를 청원한 바 있다.

문제는 ‘5처 당회’다. 현재 동북노회는 13개 소속교회 중 조직교회가 5개이며 미조직교회가 8개다. 필라노회는 6개 소속교회 중 조직교회가 3개이며, 미조직교회가 3개다. 한편 지난 회기에서 총회 임원회는 기준미달 노회들을 처리했다. 일본노회와 영어노회는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고, 유럽노회와 퍼시픽노회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폐쇄했다.

△둘째, 서북노회가 현의한 당회구성 변경을 허락하지 않기로 한 것을 총회에서 찬성 82%와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현재 헌법은 ‘당회는 지교

성을 완화하는 것을 반대했다.

△셋째, 필라노회가 청원한 담임목사 시무연한 추가 청원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회에서 찬성 75%와 반대 25%로 통과시켰다. 필라노회는 ‘담임목사의 시무 연한’을 추가하자며 ‘담임목사의 시무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해 13년으로 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해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청원했다.

△넷째, 필라노회는 지난 제44회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를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로 개정된 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절차 위반이라며,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 7인 이상을 선정해 개정안을 만든 후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현의했다. 헌법규제위원회는 현의안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시론

여전히 험악한 세월인가?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안내를 받아 바로 앞에 선 야곱은 130살이었다. 바로가 묻는다. “인생 살아온 연수가 얼마나 되셨소?” 야곱이 대답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대답은 사실이었다. 팔족 한 그릇과 바꾸는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차지한 후부터 야곱의 삶은 상당히 고단했다. 라헬과 레아 두 자매 모두를 아내로 얻고 그 여중들까지 모두 네 명의 여인과 살면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얻기도 했지만, 네 명의 여인 중 라헬 한 여인을 유독 사랑함으로써 집안의 갈등을 스스로 유발했고, 자식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다가 그로 인해 유독 사랑하던 아들인 어린 요셉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힌 채로 살아왔다. 자신의 고백대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사실 어느 시대건 어떤 사람이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세상도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인정했고, 이러한 세상에 대해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했듯이 야곱만 억울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가 팬더믹이라는 전 인류적으로 험악한 시대를 보내듯 시대마다 험악한 일들은 늘 계속되었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역사의 페이지를 써왔던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의 ‘험악한(險惡)’이란 말은 히브리어 ‘라아’이다. NIV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라아’를 고통이나 고생을 뜻하는 suffering, hardship, trouble과 같은 단어가 아니라 evil(악)로 번역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 ‘라아’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표현할 때도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보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할 때,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악 된 일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였다. 즉, 130살 고령의 야곱은 자신의 삶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권력의 핵심인 바로왕 앞에 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신의 죄악된 시간을 드러내며 고백(참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교회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라, 가정예배를 잘 드려라...’고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지만 이미 이 세상은 전통적 가정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오래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허물어지는 가정체계 앞에서 교회는 집요한 악의 도전 앞에서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야곱이 고백한 ‘라아’라는 한숨 섞인 한 마디처럼 육체적으로 늙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험악(險惡, evil)하다. 윤리와 도덕 문제 때문이나 살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또는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질병의 바이러스 앞에서 비틀거리는 상황 때문에 험악한 것이라면 인류 역사가 워낙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악(惡)의 시대,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악(Satan)이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험악한 것임을 발견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국가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선언하면서 ‘하나님(God)’과 ‘성경(Bible)’을 언급하지 않았다. 즉,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빼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평등법(Equality Act)이라든가, 동성애에 대한 이견으로 미서부지역 소속 한인목사 세 명에 대한 일방적 재파송 불가통보를 한 UMC(미연합감리교단)의 결정 그리고 날마다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미국의 현실이다.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시대 문화는 이미 ‘악’의 강력한 근원지가 되어 있고 그 ‘악’은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와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통해 얼마나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른다. 저들은 그렇게 하려고 체계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설계했다”(2020, 목자 컨퍼런스)고 말했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육목사 청빙 Seeking Education Director
미국에서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 중에 한 곳인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갈보리장로교회에서 교육목사를 청빙합니다.
We (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are currently seeking a part-time or full-time pastor for our education department.
1. 자격요건
a. 현재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b. 영어,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 우대
2. 섬기는 사역
a. 교육부서 전담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협의 후 결정
3. 지원서류
a. 이력서
b.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 사진
c. 자기 소개서
d. 신앙 간증
e. 추천서 2부
4. 서류제출
a. 서류 접수는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b. 보내주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Qualifications:
a. Currently attending or graduated M. Div from an accredited seminary
c.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preferred, not required
Position:
a. Education pastor
b. Part-time or full-time ministry
Requirements:
a. Current resume
b. Recent photos of you and your family
c.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d. Personal testimony of faith
e.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Please submit all applications to "drjho@hotmail.com" or by regular mail.

담임목사 청빙 공고
대흥장로교회는 미국 Los Angeles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77년 창립한 이후 43년 동안 분열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이 은퇴하셨기에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회경력(부목사 포함): 5년 이상 (신청일 기준)
- 2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 자기소개서 (목회소명/목회경력/신앙고백/성장배경/사모소개와 가족사진)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1년 7월 22일
제출처: application.dkpc@gmail.com
기타 서류 및 문의를 e-mail로만 접수합니다 (Word, PDF)
대흥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병원에서의 3박 4일보다는...

틴에이지 시절에 폐결핵으로 요양소 침대에 누운 후 실로 54년 만에 병원 침대에 4일을 눕게 되었다. 주일 1부 예배 중에 강단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다. 외상은 없었는데 안경이

바닥에 부딪치면서 안구를 바치는 물렁뼈를 깨뜨렸다고 한다. 눈도 뜰 수가 없었고 구토를 동반하는 통증이 이틀간이나 지속되었다. 주일 1부 예배를 겨우 마치고 응급실로 실려

갔다. 혼미한 상황에서 이동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검사하는 검사는 다 받았다. 12시간 후에 먼저 말한 통증의 원인을 찾아냈다. 깨진 뼈에 민감한 시신경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통증을 집에서는 제어할 수 없으니 3, 4일 입원해서 혈관주사로 진통제를 투입해야 한다고 해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다. 다음 날 정오가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다. 그 때야 주일예배 중에 구체적인 광고도 없이 담임목사가 응급실에 갔다는 광고만 듣고 염려하던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일반 병실에서 첫 날밤은 옆 침대의 캄비노 할아버지의 심한 기침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월 새 없이 들락거리며 간호하는 의료진들의 수고의 걸음들이 쉬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을 때 옆 침대에다가 가서 나를 소개했고, 밤새도록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다. 나이가 많은 그 분은 미국장로교회의 멤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는 반가움

으로 함께 기도했다.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 기도에 합세한 담담 간호사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금새 병실이 기도실이 되었다. 친절한 스테파니 간호사는 펜타코스트교회에 나간다고 했다. 그녀의 십자가 목걸이가 유난히 빛나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둘째 날 밤 캄비노 베니 할아버지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이루었다.

3일 동안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크리스라는 한국계 남자 간호사는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주로 누워서 바이블 드라마를 들었다. 그리고 총회 교육부가 주관하는 목회자 재교육 강의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2일 동안 들었다. 젊은 신학교 교수목사님들의 귀중한 강의였는데... 정신을 집중할 수 없어서 녹화영상을 요청해서 다시 듣는 중에 있다.

병원에서의 3박 4일은 많은 것을 깨닫는 훈련의 현장이었다. 사람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났다. 그날 주일

예배에 외부 강사의 설교를 회중석에서 듣고 강단에 오르다가 살짝 실족한 것이 병원 신세에,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두 주간 눈을 감고 지낼 줄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전8:7)는 말씀을 생생하게 실감했다. 또한 비범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그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요, 특권인 것을 과거엔 미처 몰랐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이유를 또 한 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더 놀라운 일은 내 성격이 매우 급했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병원을 나온 후 두 주간이 지났다. 시력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차를 운전하고 거리로 나섰다. 퇴근 시간의 도로는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그 전 같은 길길을 통해서라도 빠져나갔을 텐데 3박 4일 병원 체험을 한 후에 내가 변했음을 보고 스스로 놀랐다. '그래! 이 길에서 몇 시간인들 못 기다릴까? 기다림 자체가 행복한 것...'

깜깜하고 차가운 응급실에서 12시간 기다림과 비교한다면 지금 차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무엇이...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들 위로 쏟아지는 5월의 찬란한 태양, 선명하게 울리는 FM 음악들...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이 기다림의 끝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20분도 안 되어 앞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는 나는 포근한 집으로 돌아왔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 피부로 체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다.

병원에서의 3박 4일보다는 아무 일이 없어 무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다시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났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마파서 침대에 사는 것보다 마파서 좋은지 다시 한 번 사영하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태양! 나의 방패이십니다"(시84:10). 할렐루야!!!

kykim47@gmail.com



# 푸/른/초/장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남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외식이다. 속에는 별 것 입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잘 입은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다. 아간은 외투만이 아니라 은 이백 세겔과 금 오십 세겔을 장막에 감추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여호와와 공간에 갖다 놓아야 할 것들이다(6:19).

금과 은은 장래적인 것이다. 즉 자신의 장래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아간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훔쳐 자신 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 감춘 것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악한 행동을 전혀 보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 수준에 놓여있는 사람쯤으로 생각했다.

외적으로 볼 때 아간은 출애굽 2세대에 속한 신세대 인물로,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의 내부는 아직도 출애굽 1세대와 전혀 다른 미숙한 구시대 인물이었다. 최고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르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의대로 행동한

10만유로(약1억3500만원)가 넘는 금괴를 찾아냈다.

### 3. 성결은 회복의 요인이다 (16-26)

아간과 더불어 무죄한 그의 가족 및 친지들까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처형을 당했다. 분노한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돌로 쳐 죽여 화형시키고 말았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도 이끌 골짜기 화형 장소에서 모두 태워져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세라, 삼다, 갈미, 아간으로 이겨져 내려오던 유다 지파 명문 가문도 그들의 화형과 함께 문을 닫았다. 아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됐다. 여호수아 통치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처벌이었다.

아골 골짜기라는 불명예스러운 지명도 아간 때문에 생겨나, 이스라엘의 지도에 공식 표기됐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 아간, 한 때는 명품 인간이었던 그를 악독한 반역자로 기억하게 됐다.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아간의

여호와께서 혹 우리와 다투시는 점이 있지는 않은지 매우 두려워해야 하며 혹 그러한 저주 받은 것들이 있다면 처리해야 한다. 결국 아간은 그가 탈취한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은 범죄를 심판하지 않으신 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사람의 죄악도 그 아들 안에서 심판하심으로 용서하신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용서는 심판을 거친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 곧 괴롭힘(troubling)의 골짜기가 되었다. 이는 아간에 대한 영원한 수치의 표시였다.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은 또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러한 교훈은 회중에게나 우리 개인에게나 다 해당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거룩함에 모순되는 것들을 던져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들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지만 또한 악을 용납하지 않는 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다(히12:29).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나니"(벧전 4:17). 하나님은 그분을 닮은 백성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하며, 그분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모습을 잘 살펴야 한다.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의 죄를 전체 회중의 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었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 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10-12). 이는 매우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간음한 형제에 대하여 쫓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를 모든 사람의 죄로 여기신다. 당시 회중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의 임재가 모두를 하나로 묶으셨다. (6면으로 계속)

공동체는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소속감: 학습공동체의 참여자들은 충성심을 느끼고, 그 룹으로 몰려서 계속 일하고 타인을 돕도록 한다. △영향력: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의 일들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요구 충족: 학습공동체는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함으로써 특정한 필요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건의 공유와 정서적 연결: 학습공동체는 감정적인 경험이 포함된 특정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공유한다.

본문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고성의 놀라운 승리 이후에 찾아온 아이 성에서의 최초의 패배를 다루고 있다. 아이 성 전투에 입한 이스라엘 정예부대 3천명이 스바립까지 급하게 쫓겨서 도주했고, 36명이나 살해당하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않았던 어이없는 패배를 아이 성에서 당한 원인이 한 사람의 범죄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만큼 그곳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사람들이 하나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도록 전달됐다. 그런데 당시 유다지파를 다스리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범죄하고 말았다. 여러고성의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 가운데 외투와 은과 금을 도적질한 한 사람의 범죄가 아이 성에서의 패전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1. 죄는 실패의 원인이다(1-5)

사람이 많지 않아 군대를 총출동시켜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이스라엘은 장담했다. 여러고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자신의 힘을 믿는 불신앙적인 태도다. 믿음이 없어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걱

정과 공포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잠21:30-31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아간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보유해야 할 영적 주관과 없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실패자로 규정한다.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유대지파에 속한 명문 세라 족속의 한 사람이었다. 메시아 예수를 탄생시킬 최고 지파 소속의 중요한 인제요, 인물이었다. 유다 지파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갈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 아간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아간은 그에게 주어진 공적 책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자가 무

### 2. 기도는 원인을 찾아낸다 (6-15)

마침내 범죄자가 확정되었다(18). 죄의 속입수에 빠진 사람의 양심은 감각이 없다. 이는 그가 이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책임 지지 않고 그저 단체나 사람을 따르다 보면 그의 의의 표준이 양심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단체의 노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있게 된다. 그래서 악한 일도 거침없이 행하는 것이다. 실상 아간이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생활이 그를 그렇게 대담하고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다.

# 제목 공동체가 사는 길

## 본문 여호수아 7장 10-15절

너지면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서 맞은 최초의 패배 이스라엘의 패배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기셨다. 이스라엘은 아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간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자기 민족을 배신했으며 유다는 은 30에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들의 모두 소유가 불살라졌다. 그 모든 죄악의 근원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예덴동산에서 하와에게 있었던 일과 같다.

사람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아간은 먼저 보았고 그 다음 탐심을 갖게 되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이다. 죄의 샅은 사망이다(요일3:14) 신자 개인이 범죄는 그 자신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죄악을 자백하였지만 스스로 회개한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품목들을 일일이 고백하였다. 회개하는 사람은 대중 회개할 것이 아니라 여차 여차 행하였다고 낱낱이 고해야 한다(20).

아간이 도적질한 물건들 목록 그가 도적질한 물건은 먼저 바벨론(시날)산 외투 한 벌이 있다. 이는 영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다. 바벨론이란 그 지체가 혼돈이고 섞인 것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중 아간에게 있는 이런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죄는 사람의 육체에 걸맞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명하셨지만(6:18, 24) 아간은 외투 한 벌만큼은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

외식은 말하자면 편한 길이다. 실체가 없어도 외적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되기 때문이다. 헌신과 충성이 없는데도

고집 센 인간이었다. 여러석은 지도자 아간의 고집과 무지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아간은 지파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가문과 가족까지 추적해오는 동안 얼른 나가서 자수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의 양심은 무디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강박한 상태에 있었다. 사람이 한 번 타락하여 양심이 무디어지면 그 상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다. 그는 속입수에 빠져 완악해져 있었다(매튜 헨리). 속입수에 빠진 양심은 마비되어 합당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아간의 범죄가 잘 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고통으로 빠뜨렸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공동체는 사기를 잃고, 불안에 떨게 됐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 머물러 있던 아이들이 우연히 할머니가 분실한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시각적으로 분명히 알려줬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매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교회도 주전 15세기에 일어난 아간의 사건이 큰 교훈을 준다. 문화와 정치 및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도 매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문화도, 경제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우주에 있는 인류의 바른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현대인들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아간처럼 우리 진영을 괴롭히는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찾아내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깊게 양심의 기록을 살펴서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애(愛)며 들다

대한민국의 침실이 넘은 배우가 얼마 전 세계적인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최초로 수상했는데 정작 더 유명한 것은 입담이었다. 수상 소감부터 기자회견까지 그 배우가 가는 곳에는 칭찬과 경이의 탄성이 이어졌고 그것을 회자하여 '윤며들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배우의 성이 윤씨였기에 그가 하는 말들이 마음에 스며든다는 의미로 스를 윤으로 바꿔 '윤며들다'가 된 것이다. 오직 살기 위해 시작한 연기 생활이었고 무명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톱스타도 아니었던 철순의 배우가 기적처럼 이뤄낸 성공에 대해 담담히 풀어

내는 말들마다 세계인들의 가슴에 스며든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아마도 삶을 통해 얻은 진솔한 자기 가치의 힘이 아닐까 싶다. 꾸밈이 없는 진실한 여유는 동서를 가리지 않고 통한다는 증거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기의 마음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나. 따라서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어디서든 강조가 된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 마디가 사랑하는 이들에

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기도 한다. 말 한 마디 때문에 친구도 등지게 만들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배우 윤여정 씨처럼 말할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 속담처럼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지금 위기일지도 모른다. 말세로 치닫으면서 잔뜩 움츠러든 상황에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의미와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발과 배역이 극한에 이르게 기독교가 수난을 당하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오죽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열어지며 성도끼리 서로 아끼고 희생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말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어야 할 빛과 소금이 교회의 창고에만 그득히 쌓여있다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에도 빛과 소금이 거의 사라지고 없을 정도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예배가 규제를 받아 기독교의 근간을 흔든다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운운하며 반발하던 교회들이 불과 일 년여 만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가나안(교회에 나가지 않는) 신자의 수는 이전보다 배나 더 늘었다고 한다. 그나마 좁쌀 알갱이만한 신앙의 양심은 있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두려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교회들에 대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말1:10)는 경고의 말씀이 이미 교회의 강단을 후려치고 있을 듯하다. 최소한 한국의 교회들에서 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애(愛)며들어야 한다. 죄인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절절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닦아 놓아주지 않으셨다면 사용하실 사명자들을 통해 세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선교와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네들의 삶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이다. 주의 종은 주님만 위

해서 일하는 자일 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며 기꺼이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금·소금·지금이라고 한다. 죽음 앞에서 황금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고 소금은 언제든 황금으로 살 수 있으나 지금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탄생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 한다. 그 지금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만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엔 지금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애며 들도록 하는 최고의 사명에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교회 지도자들, 이·팔 평화 기도 요청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16일 크리스천헤드라인과 디시전매거진 등 미국의 기독교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목회자들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중동의 평화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 대표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에 이·팔 전쟁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는 순전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은 방공호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시 122:6)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 달라스의 오클리프바이블로우십 토니 에반스 목사도 트위터에 "내 마음은 고조되는 중동 갈등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최근 그곳을 방문했기에 내가 만난 멋진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 그레이프바인의 펠로우십교회 에드 영 목사도 페이스북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결백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도록, 평화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썼다. 그는 해시태그(#PrayForIsrael)를 표시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번 무력 충돌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양측의 유혈 충돌은 16일까지 어린이 41명을 포함해 최소 149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스라엘 측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포함한 무장단체들이 가자지구에서 2300개의 로켓을 쏘아올렸으며, 1000개는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 요격됐고 380개는 가자지구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인구밀도가 높은 해안 지대에 1000회 이상의 공습을 가했다.

대한성서공회, 모잠비크 과테말라에 성경 기증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모잠비크에 세나어 신약성경 2500부와 쇼나어 성경 3000부 및 치체와어 성경 3000부, 과테말라에 스페인어 성경 688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경 기증은 김영례 최정희 권사와 문현선 집사 등 서울 종로구 창신교회 성도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기증식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의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열렸다. 아프리카 남동부의 최빈국인 모잠비크에는 지난 1월 열대성 폭풍 '엘로이스'로 8000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발렌티 세코 모잠비크성서공회 총무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것"이라며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보냈다.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는 정권 부패 등의 문제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다. 특히 극심한 빈부격차로 마약과 성매매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이 적잖다. 이번에 기증된 성경은 과테말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회 성경학교 사역에 쓰일 예정이다. 기증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세계 곳곳에 성경으로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했다. 김영례 권사는 기증식에서 "이 성경이 전해지는 땅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미국성서공회 제11차 연례 보고서 발표

미국성서공회(ABC)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성경을 더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성서공회는 12일 영상 및 성경 읽기의 문화적 경향에 관한 제11차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보고서의 첫 장은 '미국의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 장은 '새로운 일상'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인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1억8,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성경을 읽은 적은 있으며, 이는 2019년 1억6,900만 명과 비교해 1,2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작년 미국 성인의 16%는 주중 성경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9년 12%보다 증가한 것이다. 미국인의 34%가 일주일에 한 번, 50%는 1년에 2번 이하로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가 성경을 전년과 같이, 24%는 전년보다 더 자주 읽었다고 했다. 9%는 오히려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2021년 1월 전국의 미국 성인 3,4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Z세대 청소년들 91명의 응답도 포함시켰다. 미국성서공회 관계자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대유행 속에 삶의 의미와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한 해 '세기에 한 번 있을 유행병' 기간에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미국인들을 성경으로 이끌었다"며 "거대한 압박 속에서 성경 안의 희망과 회복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인들이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추세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교회는 미국에 만연한 트라우마와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과 치유로 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다.

디즈니플러스, 가족애니메이션에 동성부모 등장

미국 디즈니플러스 채널이 10여 년 만에 재출시하는 가족 애니메이션에 동성 부모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디즈니 채널은 12일 트위터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된 '더 프라우드 패밀리'(The Proud Family) 시리즈를 2022년 재출시한다면 남자 동성 커플을 등장시켰다. 앞서 원작에서는 10대 초반의 흑인 미국인 소녀 페니가 청소년기를 헤쳐가는 과정을 다뤘다면, 이번 시리즈는 14세 사회활동가 마야 레이보위츠-켄진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디즈니사가 어린이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캐릭터'와 '정치적 올바름'을 포함시키려 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디즈니와 자회사 픽스 스튜디오는 영화 '온워드'(Onward)와 '아웃'에서 각각 레즈비언과 게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디즈니 채널 만화 '오울 하우스'(Owl House) 제작자는 작년 여름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양성애자라고 밝힌 바 있다.



디즈니는 몇 년 전부터 성소수자 캐릭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17년 디즈니 채널 시리즈 '앤디 맥'에는 동성 청소년 간의 연애가, 2017년 디즈니 실사 영화 '미녀와 야수'에는 동성애적 암시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보이콧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LA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디즈니의 트랜스젠더 캐릭터는 어린이들을 파괴하고 사악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예"라고 지적했다. 남침례신학교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 총장은 작년 자신의 팟캐스트 '더 브리핑'에서 가족친화적 홀마크 채널(Hallmark Channel)이 제작한 영화에도 동성커플이 포함된 것에 대해 "로맨틱코미디가 이제 세상을 뒤집는 도덕 혁명의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VOM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최근 약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에 집결시킨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려 섞인 압박 속에 자국 군대에 원대 복귀 명령을 내렸다. 2014년 이후 오랜 기간 계속된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성경책 보급이 이뤄졌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이 전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한국VOM은 국제적인 단체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동부 전역에 어린이 신약 성경 10만 권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배포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들여보내기에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우선 정치적인 평화가 필요해서 분쟁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미뤄다가 성경을 배포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말씀만이 언제나 참된 평화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며, 어떤 지역을 평화를 위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한국VOM은 세계의 주요 분쟁지역에 성경을 보급하는 것을 단체의 핵심 사명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VOM 측은 "기금이 들어옴에 따라 여름과 초가를 내내 지속될 이 성경 배포 사역은 현지 청소년들과 접촉하기 위해 특별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과 기존의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다. '액션 바이블'이란 대중에게 인기 있는 만화 형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소설처럼 묘사한 성경"이라고 설명했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동일하게 지금도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신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지체에게 미치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몸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독립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의 역사로 연합된 한 몸의 지체들인 것이다. 우리가 만일 스스로를 자기 방관적으로 함부로 행한다면 성령을 슬프게 할 뿐 아니라 모든 몸의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한다. 우리 한 개인의 상태가 모든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느끼게 한다. 이 한 지체가 고통을 느끼면 다른 지체도 자동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시며 악을 용납할 수 없으시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서 회중 가운데 있는 악을 보며, 이런 작은 한 명의 악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회중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아골 골짜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이나 단체 속에 작은 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 누룩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공과를 배운다. 오늘날 우리는 큰 일을 하려는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한 사람의 작은 것이라도 범죄한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 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큰 집의 불결한 그릇에서 벗어나 분별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야 한다. 아이성에서 패배가 아간이라는 한사람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여호수아 7장에서 보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자만심의 죄악과 공동체의식의 결여가 비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육의 사람 이세상적인 사람은 아골 골짜기에 장사지내고 책임과 성령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leedaewoo19126@gmail.com







## 리더십 코멘터리 (135)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미래사회를 위한 리더의 자각과 쇄신

기독교는 리더십의 부족으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전례가 없는 많은 기회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와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리더십의 부족과 리더십의 결핍에 있다. 리더십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광범위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경험과 능력을 갖고 교회를 이끄는 이들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행동하도록 하는 일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나, 그리스도께서 모

어떻게 된 것일까? 사람도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도 똑같지 않았던가? 맥을 못 추던 조직이 어떻게 다른 리더 밑에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전적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성공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실패와 어중간한 수준을 헤어나지 못하는 리더도 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리더십이다.

환경을 극복할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에서 불행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네 종류의 인간형을 제시했다. 그가 설정한 불행한 환경은 강에 물이 불어 마음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작고 낮은 다리가 떠나려가 버린 최악의 상황이다.

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영적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리더는 교회 내에서의 지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의 충성된 종으로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다.

나라를 구할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보다 더 큰 도전은 없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리더들이 국가를 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수십 년 동안 광야생활을 인도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했다. 다윗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히 세웠으며, 외부의 온갖 공격에 맞서 싸웠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귀환을 지도하고 바벨론 군대가 파괴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이들은 본이 될 만한 위대한 리더들이었다.

나라를 구할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순간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할 리더가 절실하다.

새로운 깨달음과 쇄신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접수해야 할 새로운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요즘 리더들은 리더

### 영적분야에 사회적 관심 높아지나 교회와 기독교 영향력은 쇠약해져 네트워크형 리더십으로 하나님 섭리 바로 깨닫고 일대쇄신 일으켜야

범을 보여주시며 명하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는 동시에 변화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무엇이 리더를 리더로 만드는가? 영적 리더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며, 기능과 임무 수행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제는 리더십이다

금방이라도 와해될 듯 흔들리는 낙약한 조직, 끝없이 퇴보하는 조직에 어느 날 새로운 리더가 오면 모든 것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생존가능성조차 거의 없었던 조직에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조직의 변화와 성장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이다. 이전의 리더들이 10년 걸려도 이루지 못할 일을 새로운 리더는 6개월 만에 달성했다.

첫 번째 유형은 책임회피형이다. 그는 “누가 와서 도와주겠지. 신경질 나는데 술이나 마시자”며 술을 들이킨다. 결국 술기운에 정신을 잃고 강가에서 잠들어 버린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술이나 세상 환락의 도가니에 빠져드는 인간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포자기형이다. 그는 “아이고 내 팔자야, 운도 되게 없네” 하며 비탄에 빠진다. 두 손 들고 포기하는 인간으로 이런 유형 가운데 자살자가 많다. 세 번째 유형은 운명개척형이다. 그는 몰속에 들어가 열심히 해업을 친다. 독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는 인간이다. 네 번째 유형은 네트워크형이다. 그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너지 위해서 다리를 놓기 시작한다. 혼자 할 수 없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리를 놓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불행을 많은 사람을 위해 개조하는 인간이다.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야 할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다리를 놓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다. 영적리더는 교회의 타이틀에 한정되지 않고 공식적인 직위나 직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해도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

침과 경영이론에 관한 책과 인터넷자료, 각종 세미나는 물론 해당 분야의 관련 데이터로 인해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패러다임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노련하고 유능한 리더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십이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더를 향한 도전은 매스컴상의 최신 유행과 만고불변의 진리를 구별하는 것이다. 영적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놀랍게도 교회와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다. 교회와 기독교가 세속적인 리더십의 원리에 눈뜨고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기독교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우치고 있다. 그릇되고 오래되어 시대에 뒤쳐지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새롭게 해야 한다. 지금은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교회와 기독교에 일대쇄신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 이혼가정 자녀회복(3)

#### 왜 나는 늘 화가 나는 걸까요?

질문: 아빠가 다른 주로 이사한 후로는 여름방학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비행기 승무원의 도움을 받으며 아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괜히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몇 번 옆의 친구를 살짝 발로 찬 후로는 학교나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내게 벌을 주니까 화가 더 많이 나고 점점 더 학교가

#### 분노 표현방법 알려주고 요나이야기로 설명

기 싫어해요.

답변: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되어가는 일을 알지 못해 또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과 좌절감이 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화란 마음이 상했거나 질박감, 두려움에서 오는 것으로 거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그 외에 수년 동안 지속되던 삶의 형태, 곧 부모의 화내는 모습이나 불쾌해 하는 모습을 통해 직접적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저변에 깔리게 되고 그 화를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 몰라 학교나 집에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분노를 인정하고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분노의 표현 방법을 침착하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왜 화가 나는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도록 도우면서 분노를 건설적인 적합한 방법으로 해결해주시고, 파괴적 행동이 더해질 경우 어려움만을 불러온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결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친지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따로 살게 됨에 따라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한 후 어떻게 그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풀 것인가에 초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화를 낼 때는 호흡이 가빠지고 뇌의 기능에 변화가 오면서 바른 판단과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동시에 숨을 크게 천천히 마신 후 풍선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내뿜으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풍선기법을 함께 시도해본 후의 느낌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니다.

다음으로 요나서 1-4장까지의 성경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는 몹시도 잔인한 앗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반대방향으로 가기로 했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게 가능했을까?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힘든 시간을 가진 후에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전하게 되지.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어. 요나는 그 도시전체가 멸망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박넝쿨로 예를 들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어린이들을 물론 더 사랑하시지. 화가 날 때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말해보는 건 어떨까?”

hyojungyoo2@yahoo.com

# 새생명선교회 한인장학생 모집

## New Life Mission Foundation Scholarship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는 COVID-19 등으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미 한인 가정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장학금액 : 학생 1인당 \$1,500
- 총 선발인원 : 100명
- 지원대상 : 미국내 4년제 정규대학(신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 신청방법 : newlifemissionfdn.org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서류 이메일 제출
- 신청기간 : 5월 18일(화)부터 6월 30일(수)까지
- 결과발표 : newlifemissionfdn.org 웹사이트와 이메일 공지
- 장학금 수여식 : 9월 4일(토)
- 문의 : newlifemissionfdn@gmail.com과 웹사이트 참조

\* 신청 접수는 KCMUSA(재미한인기독교재단)에서 주관합니다.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잘되고 장수하는 길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모두 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에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2-3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라고 기록했습

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헬라어로 ‘티마오’ 즉, 값을 지불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에 대하여 자식은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모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어머니는 뜬 눈으로 아이의 머리맡에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사랑은 아무 계산도 이해타산도 없는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엢6:1). 서울여대 사랑의 염서 공모전에 대상이었던 글이 “부모님은 위대하다”는 글이었습니다.

“나에게 티끌하나 주지 않는 걸인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담배라고 싶어서 불러줍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에게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글을 읽어내려 가는데 콧물이 시큰했습니다. 송강 정철의 시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엔 애달다 어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 뿐인가 하노라”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깨닫고 돌이켜 효도 할 부모님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잠23:25).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좋은 옷 벌 드릴 때 기뻐하시고, 드시고 싶은 음식 해드릴 때 기뻐하시고, 편하게 해드릴 때 기뻐하시면 부모공경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며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너무나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꿈을 포기했고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복받는다”(엢6:1-2)는 말씀을 들려주며 더욱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목숨같이 귀한 자신의 꿈을 부모의 기쁨을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공경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원뜻이 ‘최고로 높이러’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들추어 내지 말라. 명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항

자로 축복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벰전4:8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는 자가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혼을 예수님 계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명예롭게 하며 진정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해드려도 그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공경의 신비를 깨닫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songpak@hotmail.com



남기주교계 지도자들이 최근 UMC가 최근 한인교회 3곳에 대한 징벌적 재파송불가 조치에 대한 가주태평양연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UMC 징벌적 파송 조치 반대운동

남기주교계 성명서 발표... “한인교회 전체의 일”

지난달 미국연합감리교회(UMC) 가주태평양연회가 남기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등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내린 일방적 담임목사 재파송 불가 통보에 대해 남기주 한인교계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

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청교도 신앙회복운동본부(회장 한기홍 목사), JAMA(전 대표 강순영 목사), 평등범저지운동본부(실행위원장 박세현 목사) 등 남기주 한인교계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파송불가 통보

의 부당함에 맞서 UMC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와 연대해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

이같은 가주태평양연회의 세 교회 담임목사 재파송불가 통보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온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KUMC)에 내린 일방적 통보이며 전통적 성경관을 고수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회중 중 소수에 불과한 한인교회 목회자들에 한해 내려진 점은 인종차별로 판단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남기주 교계 지도자들이 UMC 한인교회총회(한교총)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남기주 교계 지도자들은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교총에 지지를 보내며, UMC 교단 본부와 연회에 항의 서한발송 및 항의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주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불의한 압박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기홍 목사는 “최근 벌어진

3개 한인교회의 재파송 불가는 특정한 교단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교계의 문제이자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모든 교회가 직면한 문제”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계가 연합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감리교회는 조선에 아펜젤러를 파송하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동감리교회를 세웠으며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만큼 매우 복음적인 교단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미주 한인교계 성도들이 미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는 “청교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건국한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이어 평등범안이 상정되는 등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다”며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영적 전쟁에서 나라와 사회,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에 모든 한인 교계가 기도와 반대 서명 운동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

부했다.

UMC 내에서 진보적 입장을 주장하는 가주태평양연회 그랜트 하기가 감독은 지난 달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 종료와 다름 없는 재 파송불가 명령을 내렸다. 하기가 감독은 통보를 내린 3교회의 담임목사 임기를 내달 말로 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임 목회자를 해당 교회에 파송한다는 계획이다. 해당교회는 담임목사 파송 등에 대한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담임목사의 사역이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UMC 한인교회총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하기가 감독의 해당교회 목회자에 대해 징벌적 파송조치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하기가 감독의 재 파송불가 통보 철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반대서명 운동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류계환 목사(한교총 선교 총무)는

UMC 한인교회의 신앙적 정체성 확립을 지지해준 남기주 교계에 감사를 표하며 “교단의 장정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정을 지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 대한 차별적 파송은 한인교회를 핍박하는 교단의 교권주의자들의 불법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MC는 2019년 교단 총회에서 전통주의 장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 반발로 진보적 연회를 중심으로 전통주의 장정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다. 급기야 2020년 1월에는 교단 분리안이 발표됐고, 2020년 5월 총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기대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돼 2022년 8월 교단 총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목회자 재 파송불가 통보는 UMC내 진보적 성향의 감독이 교단분리 시 목회자 파송 권한을 이용해 보수 전통주의 교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박준호 기자)

새생명선교회 소형 교회 목회자 후원 및 세미나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후원 및 영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지원금액: 목회자 1명당 각 \$1,000
- 총선발인원: 50명
- 지원자격: 교인수 25명~70명 규모(현재 출석 교인 - 온라인 포함)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미나 참석자에 한함
- 신청방법: newlifemissionfdn.org에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신청: 5월 18일(화)부터 6월 18일(금)까지
- 결과발표: 7월 2일(금) newlifemissionfdn.org 웹사이트와 이메일 공지

- 세미나 및 수여식 일정: 시간 - 7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 제공) 장소 -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

- 세미나 강사(가나다순) 및 주제: 강준민 목사 - 영성훈련, 김경진 목사 - 개척교회사역, 김한우 목사 - 설교사역, 노창수 목사 - 제자훈련, 박희민 목사 - 건강한 교회, 진유철 목사 - 성령사역, 최경욱 목사 - 선교사역, 한기홍 목사 - 기도사역

- 문의: newlifemissionfdn@gmail.com

\* 신청 접수는 KCMUSA(재미한인기독교재단)에서 주관합니다.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장로회신학대학 제36회 학위수여식

해외인간장로회 총회 신학교인 뉴욕장로회신학대학(학장이기백 박사) 제36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6월 6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하나님의사랑교회(담임 정석진 목사)에서 열린다. 졸업생은 △신학사(B.Th.): 고규상, 강인숙, 김두연(본교), 신소영, 신정화, 안승지, 이복단, 정해권, 최정현(남아공 캠퍼스) △교역학 석사(M.Div.): 김재화, 김은경, 조광호, 이효삼(본교), 김경란, 오길순, 오보양, 이보람(아비장 캠퍼스), 김선자(수료) △신학석사 (Th.M.): 오영숙.

▲문의: (201)374-2432

## 어린이 온라인 여름캠프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어린이 여름캠프가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 수, 목요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참가대상은 킨더가든~5학년(2021 가을학기 기준). 학비는 200불+교재(각자 구입). 참여시간 선택은 Class I: 동부시간 오전 10시~오후 12시30분, Class II: 서부시간 오전 10시30분~오후 1시.

▲문의: (201)242-4422

## 삶과 사역에 기름부음이 넘치길...

###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미나, 강사 김성국 학장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한 동문세미나가 5월 11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북가페에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현장에는 임원들만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30명이 참석했다.

동문회장 장규준 목사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기름부음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김경수 목사 대표기도 후 강의에 들어갔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봉독하고 PPT 자료를 띄우며 세미나를 시작한 김성국 목사는 "관료제는 경력을 중시하며 승진을 시키는데 능력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사역은 우리 능력밖에 있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바로 기름부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성경에서 기름부음이란 실제적인 일이기도 하며 성령의 임하심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는데 보다 구별된 역할을 하도록 주어지는 성령의 임하심을 말한다. 즉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고 일을 감당한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런 일이 된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기름부음은 1)말려주

심: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왕(왕하11:12), 제사장(출28:41), 선지자(왕상)19:16). 2)능력주심: 행10:38 3)기쁨주심: 사61:3, 히1:9 4)가르쳐주심: 요일2:24, 27 5)지켜주심: 대상16:21, 22을 의미한다.

△기름부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기름부음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1)비움(회개): 시51:9-12 2)갈망: 시28:2,8, 눅11:13이며 받은 기름을 세상으로 넘치게(시23:5) 흘려보내야 한다(요7:38,39).

△또 설교로도 흘러가야 하는데 '설교와 성령이 만나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는'(리 에클로브) 설교의 기름부음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모든 삶과 사역에 기름부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김성국 목사는 세미나를 마치며 "진짜 세미나 강사는 하나님"이시라며 참석자들에게 합심 기도를 제안하고 모든 사역에 기름부음이 넘치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기도인도 했다.

합심기도 후에는 회장 장규준 목사가 답례로 김성국 목사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김성국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 아름에 속지 말고 강력저지하자

## 뉴욕교협 평등법해악설명세미나, 강사 김태오 김사라 목사부부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평등법(HR5 Equality Act) 해악설명 특별세미나가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김태오 목사와 김사라 사모 부부(TVnext.org 대표)를 강사로 열렸다.

뉴욕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는 세미나를 마치고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같은 강도의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치화 되면서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진다. 우리가 법의 지혜를 안 받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우리 소명을 잘 감당해나가자"고 말했다.

총무 한기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원기 목사(증경회장)가 기도하고 허연행 목사의 강사소개가 있던 후 김사라 사모가 먼저 강의를 했다.

본지 필자("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5번 격주제)이 기도한 김사라 사모는 "지난 2월 25일 224 대 206으로 하원을 통과한 이 평등법이 3회의 공청회를 거쳤으며 상원에 상정되는데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상정되면 곧바로 사인한다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사라 사모는 이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안'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뉴욕교협 평등법 해악설명 특별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알아야 한다며, 평등(Equality) vs 공평(Fairness)의 차이에 대해 1)truth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2)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대적하고(패밀리의 개념변화) 3)성경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으며 4)성향(sog)의 부도덕한 행위와 표현들(소아성애자 보호)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모는 SEC3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금지안에 대해 6월을 게이프라이드의 달로 정하고 교실에서 실험/실습시키며 동성애자 제자로 키우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무심코 받아들이지 말라, 법 안에 있다고 모두 팩트(fact)는 아니다, 세상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태오 목사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1993년 제정된 SEC1107 RFRA 종교자유 복원법이 사라진다"며 "제지운동을 통해 1)다음세대를 보호하고 2)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3)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 원로목사 추대 담임목사 위임

### 설립40주년 뉴욕초대교회 김승희 선교사 파송도

설립 40주년을 맞는 뉴욕초대교회가 지난 5월 16일 주일 저녁 5시 김승희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및 선교사 파송, 김승현 담임목사 위임을 가졌다.

뉴욕초대교회는 1981년 10월 김승희 전도사를 중심으로 12명의 교우들이 우드사이드에서 개척예배를 드리고 시작됐으며 김승희 목사는 1985년 미주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94년 미국장로교(PCUSA) 교단에 가입했다.

김승희 목사는 이날 담사에서 40년 목회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역자였던 교인들과 뉴욕교협(40회기, 2013년)과 뉴욕목사회(40회기, 2011년) 회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준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감사했다. 또 40년 삶의 동역자 김경신 사모(지난 3월7일 별세)가 이 자리에 없음을 슬픔을 토로했으며 선교사로서 남은 사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담사는 김 목사가 슬픈 감정을 못 이겨 대독했다.

원로목사 추대사를 한 박종규 장로는 "미국 오자마자 초대교회를 30년 동안 섬겼다"며 "은퇴하시고 바로 선교지로 가시게 됐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중하며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목사의 선교지 도미니카공화국 엘푸에르토 지역은 초대교회가 2004년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하고 시작됐으며 교회당과 학교, 기숙사를 건축하고 현재 에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김승현 목사는 위임식에서 "지난 40년간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 오신 김승희 원로목사님과 당회, 교우들의 노고를 감사한다. 초대교회에 아무런 공

로 없는 제가 은혜로 담임목사가 됐다"며 "원로목사님의 선교사역을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돕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역교회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하고 "20년전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시작하는 각으로 임하겠다"고 답사했다.

김승현 목사는 서울 명성교회 출신으로 지난해부터 초대교회에서 사역해왔다.

이날 1부는 창립40주년 감사예배로 인도 빈상석 목사(행정위원장), 기도 전진은 목사(뉴욕한인중앙교회), 찬양 뉴욕사모중앙단, 설교 방지각 목사(뉴욕교협증경회장, 효신장로교회 원로), 봉헌특송 뉴욕초대중앙단, 봉헌기도 배준호 목사(원조연합장로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원로목사 추대 및 선교사 파송은 이희선 목사(땅끝선교회 사무총장) 집례로 추대사 박종규 장로, 영상, 목회여정 김용철 장로, 축사 문석호 목사(뉴욕교협회장) 윤세웅 목사(KCBN 사장), 화환 및 패증정, 담사 김승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은 김승희 목사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3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노회장 장경태 목사 집례로 위임목사 추천 박병준 장로, 위임목사 서약 노회사무총장 김현준 목사, 교우들 서약 박종규 장로(당회서기), 위임기도, 위임선포, 축사 문정선 목사(증경노회장), 권면 김진화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축가 월드밀알중앙단, 담사 김승현 목사, 환영과 안내 박종규 장로, 축도 김승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초대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선교사 파송을 받은 김승희 목사(왼쪽)와 담임으로 위임받은 김승현 목사가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세미나가 퀸즈장로교회 북가페에서 진행되고 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동부(NY, NJ)교회</h1>		<h3>뉴욕갯세마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진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557</p>	<h3>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4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p> <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성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립50주년기념부: 오후 1:30 주일학교선언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3>베이스айд 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식</p> <p>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친구특별사역예배: 화, 목요일 오전 8: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3>사랑의동산교회</h3> <p>담임목사: 강신용</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ey Ave., Hicksville, NY 11801</p>	<h3>어린이 개혁 교회</h3> <p>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p> <p>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 3부 오후 3:15분 창년예배 오후 3:1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h3>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오전 6:30(토) 금요공포기도: 화, 목, 금, 토요일 금요찬양 기도회: 특별예배(토)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봉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i S, Paulo Cep 01526-010</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화, 목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현지인 교회</h3> <p>선교사: 임환근 선교사</p> <p>1. 멕시코 현지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은혜한인교회 창립39주년 기념예배에서 한기홍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라마나웃과 같은 교회가 되자’

### 은혜한인교회 설립39주년 기념예배, 195명 재직세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교회설립 39주년 기념 예배를 16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오전 11시 30분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송종호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허영조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가 영상을 통해 찬양했다.

이어 ‘라마나웃과 같은 교회가 되자’(삼상19:18-24)라는 제목으로 한기홍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한기홍 목사는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진정한 안식처이고 천국의 모형이다. 교회는 소중한 곳”이라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상에 불러낸 받은 자의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소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울왕이 군사를 동원해 다윗이 도망가 있는 라마나웃으로 보냈지만 성령에 압도돼 다윗을 체포하지 못했다. 결국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지만 강력한 성령에 압도돼 다윗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성도의 삶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삶에 생길 때마다 교회를 찾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라마나웃과 같은 교회”라며 “라마나웃과 같은 교회는 △첫째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임재, 기쁨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교회다. △둘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있는 교회이다. △셋째 주의 종을 양성하는 교회다.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하고 나서 라마나웃에서 주의 종을 양성했다. 라마나웃은 영성훈련장이었다. △넷째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훈련받아야 한다. 창립 39주년 맞이하는 우리교회가 주께 기도하며 더 강력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2021년 새롭게 임직 받은 195명의 재직을 세우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13일부터 16일까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교회창립 39주년 기념 축복성회를 가졌다. 강사로는 한기홍 담임목사,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박기호 목사(풀러신학교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다니엘새벽기도회에서 신승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100일 기도회 연결계기 삼는다

### 주님의영광교회 다니엘21일 새벽기도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다니엘 21일 새벽기도회를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가졌다. 5월 15일 열린 20일 차 새벽기도회에서 신승훈 목사는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라 말하며 “다니엘 새벽기도회를 계기로 100일 기도회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합심기도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는 신승훈 목사가 단12:3, 사3:1-3, 8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고 양육하고 실족한 자

잡아줘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자”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려고 한다. 원래 인간의 위치는 죄였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며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아 한다. 의인은 복을 받는 자다. 의가 넘쳐 아름답게 열매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첫째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믿자. 둘째 악을 떠나고 의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박현숙 사모(가나연합감리교회) 대상

### KUMC 시순절 ‘믿음의글’ 공모전 수상자 발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는 지난 시순절 기간 동안 미전역 20개주 50여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특별새벽성회를 가지면서 ‘믿음의 글’ 공모전-‘팬데믹과 나의 믿음’을 진행했다.

이번 ‘믿음의 글’ 공모전은 쉽지 않은 이민의 길을 걷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의 기록을 남기는 행사로 준비돼 33교회 79명의 성도들이 85편의 신앙간증, 수필, 시와 영상작품으로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 믿음상을 수상한 박현숙 사모(가나연합감리교회)는 “네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는 간증글로 전체 분야의 대상(상금 1천달러)을 수상했다.

박 사모는 “아들람 굴에서 일어난 작은 교회 이야기는 까치발을 들고 담장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맨 끝머리 어딘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A형의 소심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는 목사 아내의 분투기에, 그럼에도 사용하고 쓰시겠다 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상의 영광을 주신 연합감리교회 한교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나의 땀뿐 아니라 상한 마음의 깊숙한 내면까지도 치유하고자 하신 그분의 ‘계획된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믿음의 글 공모전 대회를 맡은 고한승 목사(뉴저지연합교회)는 “이번 믿음의 글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의 글과 영상을 보며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큰 신앙의 공동체가 있음을 확인하며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공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월 23일(주일)에 ZOOM으로 하는 시상식에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이진희 목사(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는 “모두 79명이 참여하셨는데 정말 슬

기롭게 믿음으로 코로나 광야를 잘 지나가는 고백을 보았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가나안을 살았던 분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COVID 19-팬데믹이 우리에게 단순한 불행이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봉 목사(와싱턴사모의교회)는 “응모자들은 모두 팬데믹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불편과 결핍과 상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담담하고 진실하게 나누어주었다. 심사를 위해 원고를 읽으며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에 고개 숙여졌다”고 전했다.

발표된 수상자들에게는 본인 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 상장 및 부상이 전달될 예정이며, 5월 23일(주일) 오후 5시(서부) ZOOM Meeting을 통해 온라인 시상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와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TV’ 채널을 통해 책자와 영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믿음 이상 이외의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분야: 소망상 추민옥(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사랑상 노영매 권사(남가주주님의교회), 은혜상 송강현(워싱턴연합감리교회) △간증분야: 소망상 강선영 장로(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랑상 하주연(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은혜상 배정희 집사(뉴저지체리힐제일교회), 김소은(밸리연합감리교회) △수필분야: 소망상 정창호 장로(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랑상 서동호 권사(밸리연합감리교회), 은혜상 Lee Ann Kim(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영상분야: 소망상 전일용 집사(그레이트밸리교회), 사랑상 Nari Shin(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은혜상 Gia Shin 뉴저지연합교회)

▲문의: 한교총 총무 김일영 목사(856-424-9686, 이메일: ikim89@hotmail.com) (기사제공: 연합감리교회 한교총)

## 서부교계 게시판

### 그레이스미션대 사립학교 성경교사 및 자격증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ACSI HEAP 선정과 특별히 사립학교-성경(Bible Specialist) 자격증 설명회를 5월 24일(월) 오전 11시 개최한다. 해당 시간에 학교홈페이지(www.gm.edu)에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선택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컨퍼런스는 △ACSI 사립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 자격증의 의미 △GMU학생이 가능한 ACSI Certificate 종류 △ACSI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와 방법 △ACSI Bible Specialist 자격증 안내 △유초중고 학교 교사 자격 및 절차 △유치원 원장 및 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 및 절차 △질문과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714)525-0088(Ext 101)

### KAPC 개혁장로신학교 2021학년도 Zoom 여름특강

KAPC 개혁장로신학교(총장 이정현 박사) 2021학년도 Zoom 여름특강을 개최한다. 일정은 6월 14-16일, 21-23일 오후 7시-9시30분이며 과목은 장로교회사, 강사는 오덕교 박사(합동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7월 12-14일, 9-21일 오후 7시-9시 30분 과목은 광장의 신학, 강사는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다. 여름특강 청강비는 100달러(과목당).

▲문의: (310)749-0577, (626)675-8010

### 월드미션대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2021학년도 가을학기 간호학과(RN to BSN)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학자격은 간호사 준학사 학위와 RN라이센스 소지자이며 18개월 과정으로 100%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6월 30일 이전 등록시 입학금(300달러)이 면제된다.

▲문의: (213)388-1000, wmuinfo@wmu.edu

### 교육목사 청빙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영철 목사)가 교육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공인된 신학교 M.Div 재학중이나 졸업한 영어와 한국어 가능한 자이며 교육부서를 전담하며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 지원서류는 이력서, 개인 또는 가족의 최근사진, 자기소개서, 신앙간증서, 추천서 2부이며 서류는 이메일(drjho@hotmail.com)이나 우편(Korean-American Calvary Presbyterian Church in Las Vegas,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drjho@hotmail.com

### 사역자 청빙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주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뛰어갈 교구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사유가 없는 자 △교회 목회방향에 따라 성실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자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 소개서(목회소명/목회경험 신앙고백/가족소개 및 사진)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 2부 △설교 동영상 2개(1년 이내/Link)다. 접수마감은 5월 22일이며 서류 제출 및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는다.

▲문의 및 제출: hr@lolmc.org

### 담임목사 청빙

아이오와 주립대학이 소재한 에임스에 자리하고 있고,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를 둔 북미주개혁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CRC)에 속해 있는 에임스반석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조건은 △캠퍼스 사역과 이민목회에 비전과 열정이 있는 목사안수 받고 목회경력이 있는 자 △정규 대학과 신학대학원 졸업(M. DIV.)한 CRC 교단소속인 자(타교단소속은 청빙 후 CRC 편목과정 필요) △미국 영주권/시민권 소유한 한국어를 주요언어로 사용하는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신학교 졸업장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자기 소개서: 신앙간증, 목회 및 사회경력, 가족소개 등을 포함(3장 이내) △목회 비전과 소명서(3장 이내) △목회자 2인의 추천서: 추천인 연락처 기재(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로 보내야 함) △최근 1년 내 설교 2회분(동영상파일 또는 Web address)이다. 제출 기한은 6월 1일부터 리뷰가 시작돼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받으며 이메일(ameskrc2021@gmail.com)로만 받는다.

▲문의: ameskrc2021@gmail.com



케어팩 샘플

## 위탁아동 초기정착 돕는 4종류

### 한인가정상담소케어팩 후원 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위탁가정 아이들의 초기 정착을 도울 ‘위탁아동 케어팩’ 후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케어팩’은 위탁가정으로 배치될 위탁아동을 위한 생활필수품과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 가방

이며, 이번 캠페인 후원을 통해 연령별로 총 4종류 준비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 kfamla.org/donate에 기부하거나 케어팩에 들어갈 용품을 한인가정상담소에 직접

어) 등이다. 장학생 신청은 5월 18일(화)부터 6월 30일(수)까지 새생명선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서류들을 첨부해서 함께 이메일 newlifemissionfdn@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 발표는 8월 27일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공지되며, 장학금 수여식은 9월 4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우편메일로 수표를 전달한다.

▲소형 교회 목회자 후원 및

목회 세미나: 지원 대상은 출석 교인수 25-70명 규모(온라인 출석 교인수 포함)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50명을 선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각 1000달러를 지원, 총 5만 달러의 규모로 실시된다. 신청은 5월 18일(화)부터 6월 18일(목)까지이며, newlifemissionfdn.org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수여식 및 세미나는 7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생명비전교회(강

기증할 수 있다. 후원방법과 연령별 필수용품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AMLA)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70여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춰 특별 필수용품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AMLA)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70여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춰 특별 필수용품 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AMLA)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둥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이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70여

▲후원문의: (213)235-4854, ykim@kfamla.org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 출석교인 20-70명 목회자에게 1천달러 제공

### 장학금 15만 달러,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 목사, 이사장 박경우 장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연다.

▲미주한인 크리스천 장학생 선발: 총 15만 달러로 미주한인 크리스천 장학생 선발행사 중 최대 규모다. 신청 자격은

미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신학대학원생 포함)으로 총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 각각 1500달러를 지원한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성적 증명서(현재 재학중인 학교) △재정 증명서(학부모의 세금 신고서) △추천서 1통(담임목사) △신앙간증서(영어 또는 한국

준민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열릴 세미나 강사(가나다 순)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영성훈련 △김경진 목사(기쁨우리교회)-개척교회사역 △김한요 목사(베델교회)-설교 사역 △노창수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제자훈련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건강한 교회 △진유철 목사(나선순복음교회)-성령사역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선교사역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기

도사역.

한편 선교 및 구제 사역에 힘쓰고 있는 새생명선교회는 지난 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수 50명 이하인 45개 소형교회를 선정, 각각 1000달러를 지원 총 4만5천 달러의 지원금을 지역의 소형교회들에 전달한 바 있다.

▲문의: newlifemissionfdn@gmail.com (기사제공: KCMUSA)



### 코로나시대 선교 '순회선교사' 대안 부상 예장통합 긴급진단 워크숍서 논의

코로나19 시대에 선교사들이 비자발급 제한 등 이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선교사 시민권 문제가 재조명 받고 있다. 선교지에서 재난이나 사건·사고로 심리적 타격을 입은 선교사들의 회복을 위해 순회선교사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PCK) 세계선교부 산하 선교연구위원회는 10~12일 제주 서귀포시 라인오렌지빌과 리바이벌미션센터에서 선교현안 긴급진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선교연구위원회는 교단 내 선교현안을 연구한 뒤 세계선교부 실행연구위원회에 보완된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총회 세계선교부장으로 워크숍을 주관한 서화평(전주삼물교회) 목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선교사들의 시민권과 비자발급 절차 문제가 부각됐고 순회선교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면서 "워크숍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실행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첫날은 선교사 시민권 부여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한국세

계선교협의회(KWMA) 산하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인 정용구 선교사는 '선교사의 현지 시민권 취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정 선교사는 "코로나19 시대 선교사는 선교지 장기 거주와 비자 재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시민권 취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짚었다.

좋은 점은 거주지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웃 국가까지 거주 제한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프리카에선 케냐 영주권이 있으면 우간다 르완다 등에서도 거주할 수 있다. 현지인들과의 동료의식 강화, 현지 재산권 관리, 현지 비즈니스 선교 사업 기회 확대도 가능하다. 복지나 장학,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인에게 허용되는 건강보험이나 연금 자격이 사라진다.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도 생긴다. 특히 아프리카에선 현지인에 대한 국가의 재산몰수법이 존재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정 선교사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과 기독교장로회

등 9개 교단,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등 6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공유했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 선교사는 지난 1월부터 KWMA 회원 교단과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선교사 시민권 취득 현황을 조사했다.

기감은 한국인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위해 현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예장합동도 선교사가 선교지 비자취득을 요청하면 심사 후 가능한 방향으로 허용한다고 전했다. 예장고신은 선교사가 시민권을 받아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워크숍에선 사역지 시민권을 취득한 뒤 선교지 재산을 선교사가 편취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다. 시민권 취득은 불허하는 대신 영주권은 내부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순회선교사의 필요성에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 워크숍 둘째날 연구위원장 김윤태(대전신성교회) 목사는 '코로나19 시대 PCK 순회선교사제도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순회선교사란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전략에 대해 조언하는 선교사를 의미한다. 2007년부터 교단들은 순회선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 목회자윤리 책임 강화한 36항 '윤리강령' 발표 한성연·세습금지 생명중중 문화창출·양자 자연생태계 보존 등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대표회장 한기재 목사)가 연합기관 최초로 기독교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목회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6항의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한성연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강령 제정이 선언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은 지난해 설치된 한성연 사회책임분과위원회가 일년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한성연에 소속된 3개 교단인 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에서 각각 추천한 목회자와 신학자 등 총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예성에서 임

낙형 성결대 교수와 조현우 서안양교회 목사, 나성에서 정무성 나사렛대 교수와 이종국 기독교대 교수와 임재영 서부교회 목사를 추천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회자 윤리강령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기재 대표회장은 "한성연은 기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환경 및 생태계 문제, 낙태 등 중요한 사회 문제에 도 시의적절하게 입장을 발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할 것"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윤리강령은 '개인윤리' '교회윤리' '사회윤리' 세 부분이며 윤리마다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윤리에는 설교나 글 표절 금지, 성적 일탈 금지, 개인의 이익과 권력, 세속적 명예 추구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다.

교회윤리에는 성도들을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존중하기, 직·간접적 교회 세습 금지 등이 포함됐다. '교회 안에서 지역, 학벌, 성이나 빈부,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사회윤리에는 특정 후보 지지와 정당 참여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부동산 등 부적절한 재물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살 살인 낙태 등 생명경시 풍조를 반대하고 생명중중 문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정책을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 한국인 첫 목시안수 김창식·김기범 재조명 기감, 안수120주년 맞아 학술대회·다큐제작 등 기념사업

1901년 5월 14일 서울 상동교회. DH 무어 감독의 집례로 목시안수식이 시작됐다. WB 스크랜턴과 GH 존스, WA 노를 선교사는 안수를 보좌했다. 안수를 받은 사람은 김창식(1857~1929)과 김기범(1868~1920)이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목사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날 이후 1905년 침례교의 신명균, 1907년 장로교의 길선주 송인서 서경조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방기창 목사 등이 뒤를 이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육기관 '신학회'에서 훈련받은 김창식과 김기범은 5년 동안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수업에도 빠지지 않았다. 첫 목시안수식은 선교사와 선교 대상자라는 복음의 주중 관계를 넘어 동역 관계로 전환되는 변곡

점이 됐다.

두 김 목사는 큰 활약을 했다. 평양 남산현교회를 개척한 김창식 목사는 '조선의 바울'로 불렸다. 1929년 '포린미선리포트'는 '한국의 요한 웨슬러'라고 김 목사를 평했다. 김기범 목사는 1902년 HG 아펜젤러 선교사가 쓴 선교보고서에 등장한다. 아펜젤러는 "재능이 다양하며 한국 기독교인 중 가장 신사적이고 운운한 사람이다. 특별한 주목을 받는 신실한 제자로 제물포 원산 등에서 완벽한 목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고 기록했다. 김 목사는 인천 내리교회의 첫 번째 한국인 담임 목회자로 활동했다.

두 김 목사에 대한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 상

동교회(이성조 목사)에서 '한국 개신교 최초 목사 안수자 김창식·김기범 12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은 이들이 안수 받은 지 정확히 12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기감은 학술대회와 다큐멘터리 제작, 최초 안수자의 의미와 이들의 사역 등을 담은 책자 발간 등 기념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나를 따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이철 감독회장은 "세속적인 이유로 세리를 직업으로 택했던 타래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에 즉시 순종해 제자가 됐다"며 "1901년 목사가 된 두 명의 신앙 선배들도 신앙적 헌신으로 당시에는 무척 낯설었던 목시라는 직분을 얻은 뒤 일생 헌신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회장은 "1901년의 목시안수는 조선 복음화의 큰 결실이었고 민족 복음화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었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신앙의 후배인 우리도 바른 신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는 지난 14일 서울 상

### "기독교방송 시청과 공예배 차이 불분명..." 고신 이단대책세미나에서 터져 나온 한국교회 내부 위기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 밖의 이단·사이버뿐 아니라 교회 내 예배 약화라는 큰 위협 아래 처하게 됐다."

권기현 로템장로교회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 주최로 지난 10~11일 경북 경주 켄싱턴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단 대책 세미나에 참석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목사가 말하는 내부적 위협 요인은 공예배의 약화, 만연한 개인주의 등이었다. 그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 그래서 비대면예배가 공예배와 등가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익숙해진 이들은 이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 것과 공예배의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며 "공동체 건설과 공예배는 전도와 회심, 개인 구원이 라는 캐치프레이즈의 보조적 기능에 머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단에 대한 정의 및 대응 등의 내용이 오가는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이처럼 교회가 처한 내부 상황들이 언급되는 건 드문 일이다. 분명 교회를 향한 위협 요소들이지만 세미나 주제인 이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권 목사는 "이단·사이버 종파의 공격적인 포교 활동에는 큰 위기감을 가지면서도, 개인주의 신앙의 폐해에 대해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주의의 만연과 교회의 무관심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쉽게 잠입해 교인이 되고, 나아가 영향력 있는 직분자가 되는 통로가 된다"며 "이는 사탄에게 하나님 집 대문 열쇠를 넘겨주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권 목사는 이를 때일수록 빨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위협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지 그 표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선 연약한 교회에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규범, 성경을 주셨다.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 신조와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지혜를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고신 이대위는 2018년부터 노회별 전문상담가를 임명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한 해 건너뛰고 올해 제3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 목사와 함께 발제자로 나선 이상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바른 교리와 이단 개념이라는 주제로 현대 이단의 뿌리가 되는 초대 교회 세 이단을 집중 조명했다."

이 교수는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이 이단의 중요 특성"이라며 "기본적으로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에 이상한 교리를 더해 혼합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더하거나, 본질적인 교리를 빼거나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재현된 것이 신전지"라고 전했다.

총신대 재단이사장에 김기철 목사

총신대 재단이사장에 김기철 목사가 선출됐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작구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회의를 열고 재단이사장으로 김 목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재단 이사 15명 중 8명의 표를 얻었다. 김 목사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장창수 목사는 6표를 얻었다. 재단 이사

중 1명인 소강석 목사는 투표 전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에서 재단이사장 선출이 불발되면서 추가로 열렸다. 1차 회의 당시 합의 추대를 놓고 이사들이 강제시 목사, 소 목사, 김 목사 등 3인의 후보만 정해놓고 정회를 선언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영양)예배: 오후 2:00 평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영어예배: 오후 1:20 평일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Gardena,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가능 없음),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7: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lthe@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가족원</b> 원장 : 박운송 목사 (신학대학원대학교) 원장 박운송 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본당) 사역대상 1. 영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회 3. 가정사역자 4. 비영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재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학 교: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714)646-9259 www.sccasamsungchur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com 244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11:30(본당) KPM 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핍(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4 Montrose, CA 91020	<b>히슬소망교회</b>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 삶의 의미를 발견함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부터 주님은 내게 교도소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아일턴에 학생이자 콜로라도 청소년교도소 목사인 콜라 웨스트를 만났다. 나는 그녀에게 교도소 사역이 나의 부르심임을 알려주었다.

콜라는 그녀가 섬기고 있는 소년원에 재소자들이 내가 쓴 목상집,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그들이 나의 간증을 직접 듣고 싶어 한다며 나를 그곳에 초청했다. 나는 나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하나님이나

를 어떻게 교도소 선교로 인도하셨는지를 그곳에 십대 재소자들에게 간증을 했다.

## 나는 교도소 사역을 하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절망에 빠져서 고통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보는 일은 경이롭고 보람되었다.

나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이셨는데 엄마와 오빠에게 언어 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가하셨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오빠는 11살의 나이에 집을 뛰쳐나가서 노숙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강박들과 어울리다 교도

소에 세 번이나 가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자살을 하셨다.

오빠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나는 누군가가 오빠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나의 오빠에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일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다. 나는 주님의 부탁에 순종하고자 교도소 사역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재소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예배가 끝난 후 그들은 내게 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그 후

교도소 사역은 나를 새롭게 눈뜨게 했다. 나는 교도소 사역을 하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일을 하며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힘이 나고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 절망에 빠져서 고통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통해 치유되는 것을 보는 일은 경이롭고 보람되었다. 나는 그렇게 누군가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에 감격했다.

내가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년에 콜로라도 주로 이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덴버에서 40킬로미터(25마일)쯤 북쪽에 위치한 킨스버그와 헛슨에 있는 두 군데 교회를 섬겼다.

### 재소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2002년에 나는 덴버에 있는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재소자들을 상담하며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뻐다. 또한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임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상사인 프랭

일을 내 생애 최고의 직업으로 여겼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많은 재소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했다. 그들은 내게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냐고 물었다.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그들은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러한 책들이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었다. 외부에서 기부한 많은 책들이 교도소에 있기는 하지만 그 책들은 재소자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그들의 마음에 양식이 될 만한 책들은 아니었다.

나는 아일턴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예수님과 걷는 길"과 또한 권,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출판하여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덴버 여자교도소에서 인턴채플린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과 걷는 길"이 많은 재소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많은 재소자들을 위해 책을 공급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출판을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했다.

yonghui.mcdonald@gmail.com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 원 스토리 8강 / 아브라함(2)(창 14-17장)

### 아브라함(2)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의 화려함과 죄의 풍성함이 가득했던 나라 바벨론, 그 풍요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을 떠났으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본토는 떠났으나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버지를 마음으로 부인하고 하란을 떠나 또 다시 '갈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그와 같습니다(히11:13,14).

그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창12:7/참고. 창15:7, 17:8). 또한 본토와 아버지를 떠났으나 조카 롯의 동행을 용납했던 아브라함은 애굽의 처절한 영적 실패를 경험한 뒤 마침내 그 뜻까지도 부인하고 이전 하나님께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죄인의 삶'이 여전히 그 up and down을 반복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그 전부터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오를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 롯의 선택과 그 결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찾아간 땅,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땅이었습니다(창13:10). 그렇게 살기 좋고 보기 좋은 곳이였기에 탐내는 자들이 많았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그의 재물도 노략하여갑니다(창14:11,12). 하나님과의 소통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여 사는 세상의 삶을 따라간 롯의 형편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올 더 큰 심판의 경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사람 연합국 정도이고 사람의 힘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유황과 불로 멸망할 것(창19:24,25)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여러적음을 이삭이 반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도심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원한(삼상8:5) 그들이 세운 이 땅의 나라는 결국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왕하17장) 그 북 이스라엘의 멸망 역시 무시한 남 유다도(겔23장) 멸망할 것입니다(왕하25장). 그리고 이들의 멸망의 역사는 우리에게 본보기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고전

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 후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얻은 것에서 심분의 일을 주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창14:21)'는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창14:22-24). 이미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애굽에서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 믿음의 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4개 연합국을 무찔렀지만 치안이 오직 힘으로 좌우되는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

다루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의'는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함2:4/롬1:17/고후5:21).

### 햇불 언약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이후 하나님은 다시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삭이 백성들에게도 반복하실 것입니다(레26:45/신5:15, 15:15, 24:18). 그러자 아브라함이 확증을 원합니다(창15:8).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체결'을 하십니다.

당시의 언약체결 방식은 두 당사자들이 짐승의 몸을 둘로 쪼개어 벌여놓고 그 사이를 서로 손을 붙이고 통과하는 '피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식을 위한 준비를 시키시고(창15:9) 언약을 주십니다(창

장면입니다(창13:1,2).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할 그 갈라진 짐승 사이를 홀로 햇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십니다(창15:17).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만이 쌍방 언약이었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시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는 어떤 모양의 쌍방 언약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의 시작이시고 진행자이시며 완결자로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진행하시므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서 up and down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출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전 불가능한 시점이 되니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아

제안을 받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창16:3)와 사라의 나이 75세는 아이를 낳기에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쌍방언약이 아닌 오직 '일방언약', '은혜언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불행이 되고(창16:4-14) 또한 이후 역사에서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비참한 영적 패배 이후 계속 신앙의 상승 곡선만을 그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의 추락은 상당히 큰 징계로 이어집니다. 바로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창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나타나십니다. 이전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 아닌 이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 할례 언약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창17:1). 동행은 옆에서 하는 것이지만 죄인은 사실 하나님과의 격차(욥38-41장)로 옆에서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심으로 '뒤에서'의 동행'을 말씀하셨습니다(마16:24/막8:34/눅9:23). 다시 말하면 주체는 하나님이고 일방언약, 은혜언약으로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보태거나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엄청난 실수 후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창17:1). 여기서 '앞에서'라는 의미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양손으로 붙잡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방언약'과 '은혜언약'의 다른 형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옥한 풍요의 지역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아버지 조카를 떠나고 연합국을 무찌르고 '믿음의 의'의 인정을 받은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의 자체적인 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면으로 계속)

##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up and down 신앙여정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언약을 반복하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10:11). 만일 지금의 이 세상에서도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멸망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것들이 전부인줄 알고 산다면 결국에는 세상에서의 실패와 좌절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계9:6).

### 연합국과의 전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땅 가나안에서 만난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애굽으로 가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섰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조카 롯과 헤어지는 믿음의 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롯이 선택하여 들어간 곳 소돔에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국에 의해 사로잡혔음을 듣고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옵니다(창14:14-16). 애굽에서의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

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창15:1).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연약한 아브라함임에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창15:6). 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약속을 주신 분도 말이 되지 않고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인한 믿음'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믿겨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없음에도 믿겨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수차례 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다시 up and down을 반복하며 신앙인격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역지로 가 아닌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당시로는 아주 흔한 세상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에 바로 동의를 하고(창16:2) 그대로 실행합니다(창16:4).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종을 통해서가 아닌 사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창17:19). 하나님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받고 사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라의 말을 듣는 이 장면이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연출되었던 장면입니다(창2:17, 3:6). 그리고 그 여종 하갈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데려온 여종이었던 것입니다(창12:16).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창12:4). 물 심판 이후 인간의 수명은 급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사역인데 이미 아브라함이 같은 나라 애굽을 나올 때 연출되었던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어린양의 혼인잔치(계19:1-3)찬82장

세상심판과 달리 택한 자들의 혼인잔치에 관한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첫 번째 할렐루야(1-2)-구원,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속함을 보여줍니다. 큰 음녀인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를 갚으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둘째, 두 번째 할렐루야(3) - 그 심판과 대속의 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연

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보입니다. 즉,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에게 돌아감을 보여주는 잔치입니다. 이 구속이 찬양의 예배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 잔치의 대상인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 화 세 번째 할렐루야(계19:4-5)찬43장

앞선 계시록 4, 5장에 나온 구속을 찬양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의 경배와 찬양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구속의 완전한 영광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첫째, 24장로는 경배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대표격으로 보여진 찬상장로들은 완성된 구속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교회의 마지막이 보좌에 계신 분을 향

한 예배자가 됨을 보여줍니다. 둘째, 네 생물도 경배했습니다. 고급천사로 알려진 네 생물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 안의 예배의 원형입니다. 셋째, 보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경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참된 경배와 찬양자로 살아갑시다.

### 수 찬양의 이유(계19:6-8)찬410장

완성된 구속을 바라본 교회는 왜 찬양합니까?

첫째, 전능자의 통치 때문에 찬양합니다. 만유의 회복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임재의 상징들인 많은 무리의 음성, 허다한 물소리 그리고 우렛소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와 임재와 권위가 총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째, 어린양 혼인 기약의 완성 때문에 찬양했

습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연합이 나타남은 하나님의 경영의 마치심이기 때문에 성령 안의 의, 화평 그리고 희락을 즐기는 안식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교회는 세마포 옷으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보혈로 의롭게 된 성도의 온전한 행실을 통해 의의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와 찬송을 돌립니다.

### 목 어린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계19:9-10)찬162장

세상심판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교회가 복됨을 기록으로 확증한 명령은 교회는 구속의 참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청함 받은 자입니다(9). 이 말은 손님으로서의 초청이 아니고 어린양의 신부로서의 초청입니다. 창조 전에 구속하기로 예정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로, 어린양은 사랑으로 명령하시고 교회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10). 잔치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감격으로 천사에게 사례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 이쁨은 그 구속이 참된 경배로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을 따릅니다(10).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 금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인가?(계19:11-13)찬97장

계5장에 나온 백마 탄자를 복음운동이라 한다면 여기서는 그 주체자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3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첫째, 충성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11). 복음의 승리는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충성과 진실의 원천인 진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의로 심판하는 용사이기 때문입니다(12). 성

부는 성자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는 그 자신이 절대 심판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13). 피뿌린 웃을 입으신 구속자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호칭을 가졌습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마지막 완전히 드러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그만을 따라야 합니다.

### 토 그는 무엇을 하셨습니다?(계19:14-16)찬367장

백마 탄자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따르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14). 그리스도는 성결을 의미하는 세마포 입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둘째, 만국을 심판하십니다(15). 그는 그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이것

은 창세전에 예정된 불택자의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셋째, 마침내 그는 만유의 모든 활동과 모든 상황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심을 주장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참 심판자이심을 마지막에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 분을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9)

### 정체성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다니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기록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와서 약 3-4년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15세 정도에 포로로 잡혀온 뒤 3년간 왕국학교에서 수학한 직후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약 18-19세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필자는 그들이 어린 시절에 떠나면 타국으로 잡혀 와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철저히 박탈당했음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비결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체성을 확립(identity achievement) 하게 된다.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이전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파서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프로이드 제자였던 에릭슨(Erik Erikson)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나이순으로 8단계로 구분했는데 그중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하게 숙해야 할 과업으로 정체성 확립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정체성을 수립하지 못하면 평생에 걸쳐 역할 혼미상태에 빠진다고 보았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 추구하면서 달성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등은 바로 정체성과 관한 것이다.

이런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하는가? 마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아직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이전에 그들의 부모와 당시 요시아왕의 개혁정치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느브갓네살왕의 꿈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들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렇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정체성이다. 그래서 정체성은 사단과의 싸움이

### 정체성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널리 알리려 정체성의 핵심: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소유된(벧전2:9)

(James Marcia)는 바로 정체성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심리학자인데 그는 정체성은 통상 4단계를 거치면서 확립된다고 보았다. 첫째는 정체성 미확립(Identity diffusion) 단계로 청소년기 아동들은 자기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내용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단계이다.

그러다가 정체성 혼미(Identify foreclosure) 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막연히 자신이 추구할 가치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때 그들은 중요한 타자들(부모, 교사, 교회 목회자, 위인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철학에 대해 동경심을 가지지만 아직 그들의 것으로 체화시키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런 후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다. 이를 정체성 유예 단계(Identity moratorium)라고 부른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하거나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기도 한다.

에릭슨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권장했다. 때로는 방황하거나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사실 그의 발달이론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바로 청소년기 정체성 확립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단은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험박하고 때로는 교화시킨다. 세상 문화에 정체성을 맞추도록 유혹하는가 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회유하기도 한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느브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사상과 가치, 교육으로 하나님이 규정한 정체성을 파괴하려 했다. 더 나아가 최고의 문화, 의식주등을 제공하면서 바벨론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려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며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파괴하려 하였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였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은 벨트사살(바벨론의 신인 벨이 왕을 지킨다는 의미)이라고 바꾸게 된다.

그러나 그런 허위의식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다. 그것이 필자가 다니엘을 존경하는 이유이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필자는 바로 그 정체성의 힘을 늘 깨닫게 된다. 다니엘서 1:8을 보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15면으로 계속)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NYU School of Medicine | 문자: 929-410-4475  
180 Madison Avenue # 3-23 |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New York, NY 10016 |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랄리한인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 :**

-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 정규 대학교 미국장로교 (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 나이 30대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 최근 설교 (CD, DVD, Web Address)
-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1년 6월 30일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 서류는 이메일(PDF)로 보내셔도 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상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 퀸즈장로교회 교인들에게 복사인회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

본지 발행인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의 저서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갔을까"(출판 국민일보, 편집 히스핑거)의 사인회가 5월 16일 주일 퀸즈장로교회 1층 로비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책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심했던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주 1회 국민일보에 연재됐던 내용을 한권에 묶은 것으로 팬데믹 시대에 당면한 교회문, 예배에 대한 아픔과 소망을 담았다. 사인회는 1부 예배와 저녁 예배 후 2회에 걸쳐 가졌으며 이미 책을 구매한 교인들도

이날 김성국 목사의 사인을 받았다. 책은 권당 15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모두 문서선교로 사용된다.

한편 이 책은 문서선교를 위해 현재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번역을 준비 중에 있다.

▲구입처: 퀸즈장로교회 (718-886-4400), 미주크리스천신문사(NYchpress@gmail.com), 히스핑거(hisfingermall.com) 및 미국내 각 서점.

(유원정 기자)

###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정체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다. 뜻을 정한 사람은 환경과 조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정체성의 힘이다. 필자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정체성으로 무장되기를 기도한다.

물론 정체성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다.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때로는 낙담하고 타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누차 봐오지 않았는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성경은 정체성을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권면한다. 내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구절이 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같은 단어에 주목하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4가지 단어('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그리고 '소유된')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이며, 왕 같이 존귀한 자이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왜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정체성이 없는 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정체성을 헛된 방향으로 소모하거나 낭비하는 것도 문제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진 것이다.

hlee0414@gmail.com

### 시론

(3면에서 계속)

130살 야곱이 '협약한 세월'이라고 평가한 세상, 그 세상은 이후 수천 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협약(evil)하다. 아니 더 협약해졌고 그 협약함은 교활해져서 '부드러운 협약함'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곱을 약삭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속입수를 썼다고 하지만 그건 약한 일이 아니라 약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법

이었을 뿐이다. 역사 속 인물들을 들여다봐도 약하기 때문에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약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인간의 약함이 약한 세월을 살게 했던 것이며, 약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함 때문에 의의 옷 위에 더러운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하늘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already yet come)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협약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

을 받은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뉴스 속에서 약을 발견한다. 그리고 독백하고 있다. 협약한 세월을 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대는 끝까지 악(惡이) 주장할 것이고 그 앞에 선 인간은 여전히 약(弱)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30살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오늘 새로운 선언을 하고 일어나야 한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주의 힘은 강하다. 주는 전능자이시다" 이 원조적 신앙고백이 협약한 세월을 이기게 할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 32.가정 선교(Family Mission)

가정은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최초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 에덴동산에 세워졌고, 행복과 축복의 장(場,field)이었고,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실낙원 되었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별거, 이혼, 재혼, 청소년 탈선, 불효 등으로 '가정파괴와 상실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정은 지옥이고, 학교는 감옥이다"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House)은 있지만 가정(Home)은 없다"고도 말합니다.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

화를 통하여 범죄하기 전 천국의 모형인 행복과 축복의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God's Works)을 흔히들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이라고 불렀지만, 극심한 가정 파괴와 상실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 총괄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사역의 차원을 넘어 선교적인 차원에서 '가정선교(Family Mission)'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 된다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

이 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선교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머나먼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 선교적 의미의 땅 끝인 가정선교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 결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등잔 밑이 어둡다'(At the foot of the candle it is dark)는 격언같이 해외선교를 중시하지만 가장 가까운 그러나 해외선교에 가려워 잘 보이지 않는 영적 결손의 가정선교를 등한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정선교(Family

### 가정 회복하고 복음화 하는 가정선교가 핵심선교

정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문제의 중심에 가정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같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실로 최종적이며 유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땅끝'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지역을 말하며, 지리적으로는 로마나 서바나(롬15:23)를 말함입니다. 그러나 영적, 선교적 복음화가 되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복음

입니다.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결손가정의 선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노라"(마15:24)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했고, 믿는 성도라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

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1:8)고 했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6:10)고 했습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가정선교와 가정구원에 있습니다. 미국을 이은 선교 제 2강국

Mission)를 등잔밑선교(Under Lamp Mission), 주변선교, 변두리선교(Edge Mission)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선교가 등잔밑선교나 주변선교, 변두리선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선교(Core Mission)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므로, 작은 교회인 가정의 파괴되면, 큰 가정인 교회는 자연히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선교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모든 선교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말세적 사탄의 가정파괴 작전에 대한 최선의 방비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선교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복음화 시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학사 및 석사 과정 TRACS 인증

ats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TRACS 정회원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강의 운영 한국어 및 영어강의 스페인어, 중국어 동시통역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Hybrid 강의 (대면 미팅 및 Zoom Lecture, 통신)

## 이벤트1.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접수 후 입학허가 5월 500불, 6월 300불, 7월 150불의 Early Bird 장학금

## 이벤트2. 화상 및 Offline 입학설명회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어)입학설명회  
6월 17일(목) 오후 3시(Offline)입학설명회  
6월 22일(화) 오후 2시 (영어)입학설명회  
7월 8일(목) 오후 4시 (한국어)입학설명회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gm.edu/online)

Admission Zoom Interview : 213-993-4154(pw:2020)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Ext 101)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탈 교회신자, 다시 돌아오게 한다!

## 처치리더스컴, 톰 S. 라이너 '라이프웨이' 설문조사 통해 탈교회 원인과 해소방안 소개 (하)

그들이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교회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떠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역의 몸 된 교회로 다시 불러올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가 알아낸 것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요소들이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상당수의 탈 교회 신자들이 다시 돌아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지만, 과반수(62%)가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대로,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 소수(28%)만이 가까운 미래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 초대의 힘

아마도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게 된 가장 과소평가된 이유 중 하나는 '누군가가 그들을 다시 초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일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교회를 다녔던 이들 중 41%가 친구나 지인이 초대하면 지방 교회에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들은 초대의 힘에 더 큰 영

향을 받는다. 18-35세의 약 60%는 누군가 아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초대장은 탈 교회신자들을 위한 귀중한 길을 재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다. 당신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다시 초대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누군가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친구와 가족들이 그 또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있어야만 한다.

### 차별점을 만들어라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신자 중 거의 3분의 1이 교회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언급했다. 대체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사역에 더 성취감을 느

중요한 것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공헌에 대해 기준이 높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들을 단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교회의 일부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세 가지 동기부여 요인 중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먼저 교회복귀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 교회복귀가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이 위치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보조적인 것보다 삶에 적용되는 성경적 가르침에 관심 가져 누군가 초대하기, 높은 기준과 기대감이 다시 돌아오게 해

### 동기부여 요인 3가지

단순히 친구를 다시 초대하거나 그가 개인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실용적인 방법이지만, 돌아오게 하는

둘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탈 교회 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들이 떠난 이후 느껴왔던 감정적, 정신적 격차를 메우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탈 교회 신자들은 교회에 화가 난 것이 아니다. 교회 내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떠남을 그들이 화가 났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신자 중 극소수만이 그 지역 교회에 대한 적의감을 드러냈다: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

종과 상관없이 돌아온다. 18-35세의 거의 절반이 그 이유를 들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때때로 반항적이거나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반항이라는 이유가 일부에게는 확실히 적용되긴 하지만 많은 젊은 층의 젊은이들은 영적인 이유로 돌아오고 있다.

▲탈 교회 신자들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색해 하지 않는다. 단지 15%만이 그들이 돌아가면 어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떠났던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색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 교단적 선호는 변하지 않는다. 오로지 2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반대로, 떠난 사람들의 64%는 같은 교파의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선호한다. 분명히, 교단적인 선호는 떠나는 사람들의 이면의 이유가 아니다.

▲두 번째 방문은 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하다. 탈 교회 신자들의 거의 3분의 2는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두 번째 방문 때까지 익명으로 남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교회는 모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2, 3번째 손님들에게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 가르침의 적용은 교회에 복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탈 교회 진영 내 많은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과 삶에 대한 흥미롭고 현실적인 대화를 제공하는 교회를 찾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래서 탈 교회 신자들은 보조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적용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원스토리

(13면에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였고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드러난 의미이며 이후 모세와 다윗을 통해 이어질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심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실수로 최고의 징계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씀하

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통한 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신앙의 핵심이 되는 '약함의 강함'(고후12:1-10)에 대한 구약 역사속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불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을 것이고(창17:2)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창 17:4). 다시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실 때 언약을 통해서 보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보실 때 언약과 함께 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후손 사이에도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창17:7).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의

옛 이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바뀐다(창17:5). 자격이 있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 준비하신 땅이라고 반복하십니다(창17:8). '할례'를 증표로 삼겠다고 하십니다(창17:10). 할례는 비록 잠시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 더해질 인간의 '의'도 '공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주시는 것이니

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형식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신10:16/롬2:28,29). 그리고 그 할례의 대상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창17:12) 이는 앞으로 이어질 이방인 복음에 대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뿐 아닌 사라의 이름(창17:16)도 바꾸신 하나님은 다시 확증하십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아직 나지도 않은 아들 이름도 주시면서 받

시 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창17:19,21). 이것이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up and down의 신앙여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반복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a@gmail.com



## 제237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 평신도가 살아나는 목회!

## 신약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경적 교회를 현실로!

[날짜] 2021년 7월6일(화) ~ 7월11일(일)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신청기간] 2021년 5월 25일 ~ 6월 14일  
 [온라인 등록] <http://www.seoulbaptist.org/>  
 [문의처] 713-896-9200 / [sbch.office@gmail.com](mailto:sbch.office@gmail.com)

영어 세미나도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온라인 등록] <https://nlftx.org/>  
 [문의처] 713-896-7755 / [seminar@nlfhouston.org](mailto:seminar@nlfhouston.org)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회중 NLF

가정교회에 대해 궁금하세요?

GBC 미주 복음방송  
 (AM 1190 또는 <http://www.kgbc.com>)에서  
 방송되는 "GBC초대석"에서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수관 목사를 통해 들어보실수 있습니다.

CDC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대면 세미나입니다.